朝鮮日報
夕刊
十日(火)
本紙朝夕刊十面

大國間保留兵力 共通量約定主張

潛水艦廢止에는絕對反對表示

永野全權聲明內容

【倫敦九日發聯合】日本全權團은九日 全權團本部에서 內外新聞記者團을 招致하고 聲明書를發表하야 永野全權의演說을 敷衍하고 會議에臨할 日本政府의方針을 具體的으로 聲明하엿는데 聲明全文은 左와如하다

今日의開會式에잇서 永野全權으로부터 日本政府의 見解를 얼마큼 述한바잇섯는데 右에關하야 若干說明을 加하려한다 日本政府는 今次의 會議에잇서 五個國間의 海軍兵力의 量的質的兩方面에亘하야 가장公正妥當한 軍縮協定을 締結하야 關係國間에 不脅威 不侵略의 原則이 確立되여 各國國民의 負擔을 크게 輕減하려는것으로 爲先 右協定의根本은 吾等世界大海軍國間에保有兵力의 共通最大限度의約定을 要求하는것이다 그리고 右共通最大限度는 될수잇는대로 低下하야 軍縮達成에 向할것은 勿論이다 大槪 公正妥當한 軍縮協定의 達成을爲하여는 從來와如한 差等比率主義의 制限方式을 廢하고 關係各國이 國防上 平等의 立場에 서는것이 必須要件이라고 信한다 日本은 右根本方針에 基하야 航空母艦 主力艦 甲級巡洋艦의 全廢 又는 攻擊性이巨大한 艦種의 縮限을 主張하야써 侵略戰爭의 可能性을 封함 乙級巡洋艦 驅逐艦 潛水艦의 防禦的兵力은 各國의 國情에 應하야 그必要한 艦種을 整備케하야 國防의 安固를 主張하는바이다 따라 日本이 潛水艦廢止에 同意할수는 絕對로 업다 日本全權은 右가國際平和樹立及 人類의 福祉에 貢獻하는바가 자못 顯著하다고 確信하고 이見地에서서 終始 各國全權과 虛心坦懷로 折衝을遂하야 가장公正妥當한 全般的新軍縮協定達成을爲하야 翼贊한 協力을하려하는것으로 海軍軍縮의目的을 達成하고 世界平和를確立하기를 衷心으로 希望하여마지안는바이다(사진은永野全權)

軍縮方針에關한 各國比較對照表

【倫敦九日發通特派員發】日本代表部에서는 九日夜各國의軍縮方針에 關하야 最近의比較對照表를作成하고 今後의 會議에서의 各國의 態度를 卜할參考資料로 하게되엿는데 各國의 主張은大要左와如하다

一、量的制限

▲日本 差等比率廢止 共通最大限決定要求
▲英國 英帝國 安全保障에必要한 嚴密의兵力量을 要求하고 此에巡洋艦의自主的有量을 要求
▲米國 華盛頓條約의 原則을持하고 此를基準으로 一律削減要求
▲佛國 獨、伊兩國兵力總和의 [illegible]

一、質的制限

▲伊國 佛獨均勢要求
▲日本 戰鬪艦、航空母艦、甲級巡洋艦을 攻擊的武器라하야 全廢 또는 大削減을要求
▲英國 戰鬪艦、航空母艦의 縮減要求
▲米國 軍艦噸數減下反對
▲佛伊兩國 艦型縮少에는應치안흘것이나 但自國에잇서 必要한 艦種選擇의 自由를要求

一、建艦宣言案

▲日本 實質上差等比率을 課하는 것이라고하면 絕對反對
▲英國 될수잇는데로 長期의例컨대 六個年과 如한 建艦宣言案을要求
▲米國 宣言이 日本의 兵力增大를 意味하는것이라면絕對反對
▲佛國 獨逸의意向이 判然되지안흠으로反對
▲伊國 에디오피아問題及國內的財政的考慮에서反對

英米의根本方針 依然日本과對立

微妙한立場에선 佛政府軍縮態度

【東京電話聯合】軍縮會議第一日의 九日 各國代表에依하야 各其根本的態度가 宣明되엿다 그리고 日本側에對하야 가장重大한 關係가잇는 英米의態度는 昨年의 豫備交涉當時와 何等變함이업고 差等比率主義를 固執하는것은 明白한것으로 日本의 根本方針과는 全然相容되지못하는 對立을示하야 會議의前途는 豫想대로 難色이 자못濃厚하야 決裂必至의 感을深케하엿다 日本海軍方面에서는 豫備交涉以來日本政府가 取하여온公正妥當한軍縮方針에關하야何等考察을 要하지안흔데關하야 遺憾되는것을表示하엿나

【倫敦九日發聯合】佛國代表는 今回의 海軍縮少本會議에서 極히 微妙한 立場에 잇는바 그 去就는 注目되여잇다 同代表部에서 콜반代表의 演說에 依하야 自國의 主張을 闡明한後 하야 時局情勢의 推移를 靜觀하야 適當한時期에 對案을 提示할 意向이라고 解釋되나 佛國代表部代辯者는 九日夜 칼톤호텔에서 말하기를 佛國政府의 主張은 콜반全權의 演說로 明瞭하나 佛國政府는 比率에依하야 各國의海軍力을 決定하자는 앙글로삭손流의 方式은 儀認하다 그리고또 英國政府의 二國標準方式도 穩當을 欠하여잇다 海軍力에關한 佛國政府의主張은 一面絕對的인同時에 他面相對的이다

海洋、歐洲二組로 具體的議事進行

軍縮會議本格化

【倫敦九日電通特派員發】軍縮會議는 十日午前十時半부터 크라렌스하우스에서 열린 第一委員會에서

一、各國의 軍縮方針의 一層具體的說明
一、分科委員會設置
一、會議議事進行方法、議題表等의決定

等本格的會議에 入하기로 되엿다 五國이 何時까지나 一齊히 討議하는것은 함부로 問題를多岐케하야 紛糾를 增加할뿐임으로 途中에서 以前 倫敦會議當時와 同樣으로 會議를 原則的으로

一、海洋組(日、英、米)
一、歐洲組(英、佛、伊)

의二部로分하야 個別的으로 議事를 進行하야 招請國으로서의 英國이 兩者의 相關的 調整에 任하기로되엿다

非公開 全員委員會開會

【倫敦九日電通特派員發】九日軍縮會議는 出席代表로서 그대로 全員委員會로하고 十日午前十時半(日本時間十日午後七時半)부터 크라렌스하우스에서 非公開會議를 開하기로되엿는데 右委員會에서는 各國으로부터 各其軍縮方針을 敷衍說明하고 아울러 各種委員會의 構成을 決定할터인데 日本側도 永野、永井兩全權、岩下少將、榎本海軍書記官、山形外務書記官及 [illegible]田通譯等이 出席하기로 되엿다

開會式에關한 永野全權感想談

【倫敦九日發聯合】永野全權은午後永井全權 岩下少將 阿部大佐列席下에 日本人記者團을 引見하고 開會式의感想을 말하엿다 開會式의 感想은 아모래도 英米兩國政府가 熱心으로 眞摯하게 問題를 考慮하고잇는것은 明瞭하나 各立場이 甚히 懸絕되여잇는것은 否認하기困難하다 米國代表는 主力艦의艦型縮少는 絕對反對하고 現狀維持를 固執할 意向일것이다 英國政府는 潛水艦에 注力하고잇스나 全廢 或은 徹底的縮減案이 成立되리라고는 생각할수업고 潛水艦 濫用防止에 目的을 두고잇다 要컨대 各國의 立場이 懸絕되여잇는 形勢는 相當히 重要하다

人間爆彈으로 日本이米國攻擊!

米飛行家下院서證言

【紐育九日發聯合】國領要塞地帶問題를 이르킨太平洋을 第一番으로 橫斷한 飛行家 방구번氏는 九日 下院特許委員會의 證言에 當하야 日本空軍의 脅威를 强調하야 日本에는 人間이 彈丸中에 드러가 自由로 目的物을 向하야 爆破를 加하는 爆彈이잇는것을 述하야 大問題를 이르키엿다 방구번氏의 證言內容은 左와如하다 余는 早晩 紐育이나 華盛頓이나 모도 日本空軍爆擊隊의 攻擊圈內에 드러가리라고 豫想한다 日本의 國策은 第一에 米國을 占領하고 第二에 蘇聯邦을 倂呑하고 第三에 남어지 各國을 占領하야 全世界를 그의支配下에 統轄하려하는것이다 따라 米國은 國內에 積大한空軍要塞를 構築하야 日本空軍의襲來에 備하지안흐면안된다 余는 日本에는 一朝有事時에는 一命을 버릴覺悟가잇는 飛行家는 몃千人잇는줄아나 日本에는 爆彈內部에人間이드러가 自由로 爆彈의方向을 操縱하야 目的物을 破함 研究가 完成되엿다한다

英佛共同和協案

英閣議에서承認

即時伊、에兩國에通告

【倫敦九日發電通】九日 英國政府의 緊急閣議 結果에 對하야 確聞한바에 依하면 右閣議에잇서서는 드되여 英佛共同의 伊에和協案을 承認하는 同時에 右承認의 趣旨를 直時 佛國에通告하야 和協案을 卽刻 羅馬와 아디스아베바 兩政府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이때문에 이든聯盟相은 十一日 주네브에 急行하야 十二日부터 開會할 聯盟十八國委員會에서 右提案에 基하야 伊에問題를 急速 處理하기를 提議하기로 되엿다

零下十度酷寒에

放水로學生示威鎭壓

學生示威로軍部緊張

【北平九日發電通】學生示威運動의一隊 約一千名은 午後三時半 西城으로부터 東城에入하야『打倒日本帝國主義』를 高唱하고 到處에서 民衆에 向하야 北中自治反對를 演說하면서 가장 繁華한 王府井大街에나와 公使館區域에 接近하매 露地口에 潛伏하여잇든 消防隊가 一齊히 호-스를向하야 放水하엿기때문에 學生軍은 零下十度의 酷寒에 물소낙이를맞고 解散되엿스나 市中에는 拔身한劍과 銃과拳劍한 武裝巡警이 要所要所에서서 商店은 門을닫치고 凄慘한空氣가 充滿하여잇다

【北平九日發電通】北平市長秦德純氏는 日本官憲이 中國學生界의 不穩한 計畫이잇는것을 探知하고 事前에學生示威運動禁止를 警告한데對하야『絕對로 實行하겟다』고 明言하엿스나 九日 近年에 例가업는 猛烈한 排日運動이 勃發되엿기때문에 日本關係方面에서는 極度로 憤慨하야 中國側에 嚴重抗議하는一方 그對策에對하야 目下極度의 緊張裡에 重大協議를逐하고잇다

商震氏後任 宋哲元氏當分間兼任

【北平九日發聯合】中央에 辭職通電을 發한 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의後任은 蕭振瀛氏로 內定되엿는데 十日行政院會議에서는 當分宋哲元氏의兼任으로 發表될 模樣이다

佛艦要塞撮影事件 中央問題로嚴重抗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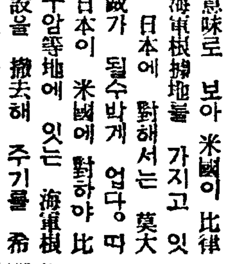
【羅北電話聯合】佛國東洋艦隊巡洋艦주-이號의 要塞地帶撮影事件은 모로오艦長의 要塞司令官及 憲兵分隊長에 對한 陳謝로 局地的으로 爲先 解決하엿스나 狄州參謀長 藤田守備隊司令官、酒井海軍武官等 軍首腦部가 協議한結果 軍當局에서는 此種 事件의 頻發에鑑하야 斷乎히 强硬한態度로써 臨하기로 決定하고 모로오艦長에 對하야 嚴重抗議하는 同時에 駐日佛國大使로하여금 日本政府에 正式陳謝하야 遺憾되는 뜻을 表케하기爲하야 問題를 中央에 移牒키로되여 軍當局은 一切를本省에 報告하엿다

巴里試案正文 伊에兩國에提示

伊太利受諾하면石油制裁延期

에國은政府試案에難色

【巴里九日發聯合】英國政府가和協試案을正式으로受諾한結果 라발首相은 마침내 十日 伊에兩國政府와 聯盟理事會에 試案正文을 正式으로提示하고 十二日까지에 諾否의回答을 要求하기로 決定하엿다 에디오피아皇帝는 어나程度까지 內諾을與하지안햇는가 觀測되는데 뭇솔리니首相이 試案을 受諾하면 英佛兩國政府에서 石油斷交案의 執行延期를 十八日委員會에 提言하고 伊太利政府에서는 東阿遠征軍의 軍事行動停止를 命令하야 歐洲國際政局은 一變 明朗化로 向하리라고 期待되다



【아디스아베바九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當局은 巴里和協試案에難色을 示하고 九日夜如左한見解를 漏洩하엿다 和協試案에 關하야는 아즉正式提示를 接치못하엿다 新聞報道의 傳하는바에依하면 今回의 試案은 에디오피아國領十割讓을 前提로한것으로 에國政府로서는 同意할수 업다 (寫眞은 에國皇帝)

反英運動再燃 死傷五十餘名

【카이로九日發聯合】호어外相의下院演說以來 俄然再燃한 獨立派의 反英爭擾는 九日에至하야 드듸어 險惡化하엿는데 不穩한空氣는 學生街로부터 다시 一步市內에 波及하야 示威團은市中을 橫行하며 街燈을 破壞하고 電車、乘合馬車에 放火하는等 新戰術에 나왓스므로 政府當局은 斷乎한 處置를 取하기로決定 警官隊는 各地方으로 增援을어더 各處에 示威團과 猛烈한衝突을 惹起하야 示威團의 投石에對하야 拳銃으로써 應戰한結果 死者一名、負傷五十餘名을 내엿다

軍縮會議前途에 橫在한諸難關

均勢要求、潛水艦廢止、政治問題導入等

【倫敦九日發聯合】海軍軍縮本會議에臨한 各國政府의方針은 數次의私的折衝과 開會式의演說에 依하야 大略 明瞭하게되엿는데 會議의見解는 依然 晦暗을 極히하야 新協定이 成立될 希望은적은바 會議의前途에 橫在한 難關을 擧하면 左와如하다

一、共通最大限을 基調로한 日本政府의 均勢要求는 英、米兩國代表가 絕對反對를 表明하고잇슴으로 日本代表部가 最少限方式의 先議를 主張하면 重大暗礁에 直面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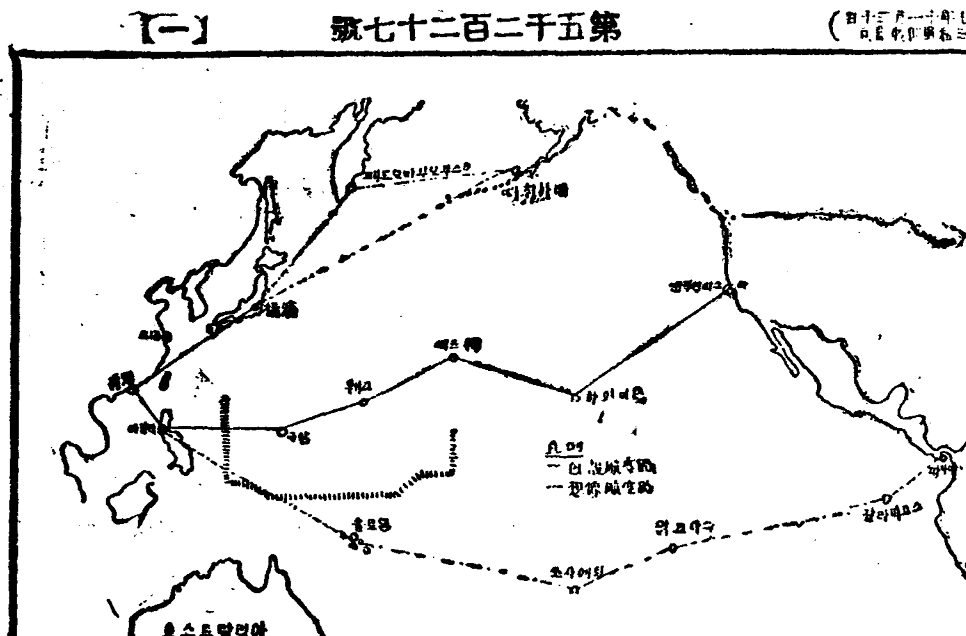
一、潛水艦全廢案에對하야는 日、佛、伊三國代表가 絕對反對이므로 結局 成立되지 못하고 要컨댄 濫用制限案에 落着되리라고 解釋된다

一、政治問題의導入 英國政府는 議事紛糾를避하기爲하야 政治問題의 導入을極力回避할方針이라고 觀測되는데 北中及 地中海의 情勢를 定케하지안는限 海軍制限案의締結이 成立되지못하리라는見解가 相當히 有力하다 太平洋島嶼의 防備制限에 關한華府條約 第十九條等에 關聯하야 政治的問題를 어느程度까지 討議하지안흘가 觀測된다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米國旣設未設의 太平洋橫斷航路 (廿二)

雲崗生



米國의太平洋橫斷航路

日本을 假想敵(想定敵이라고도한다。)으로한 米國海軍의 太平洋海軍根據地에 對한 意圖가 奈邊에 잇는가는 이마쯤 하면 充分히 알수가 잇슬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問題에 對하야 좀더 明瞭한 槪念을 가지기 爲하야 米國의 太平洋橫斷을 爲한 旣設及未設의 路線을 研究할 必要가 잇슬것이다。 米國이 생각하고 잇는 太平洋橫斷航路는 三線이다。

第一線은 北太平洋의 쌍가플이라는 定評이 잇는『다치하바』로부터 메트로파브로브스크를 經由하야 又는 이것을 經由치안코 日本으로 오는길인데 이線은 艦艇의 航路가 아니요、飛行機의 航路다。有名한 다치하바는 아라스카의 西南端에 잇는 아류시엔群島의 東南端우나라스카島에 位置햇는데、 此根據地는 하와이를 相距하기 二千五十海里、또 산프란씨스코를 相距하기 二千七十海里、日本橫濱을 相距하기 二千五百十海里이다。이 距離로보아 알바와 가티 米國의 空軍은 다치하바、산프란씨스코間、又는 다치하바、하와이間의 往來로써 練習을 거듭해가지고、實戰에 臨해서는 日本을 襲擊하려는 作定으로 잇다。 萬若、飛行機의 速力及 航續力이 좀더 發達하야 다치하바로부터 橫濱까지 無着陸으로 와다가 도라갈수 잇게 된다고하면 이것은日本에 對해서는 莫大한 脅威가 될것이다。그러고、例의 메트로파브로브스크는 蘇領캄차카半島의 南端에 蘇聯이 施設한 航空根據地인데、一旦、有事時에는 米國이 蘇聯으로부터 使用權을 엇거나、又는 買受할는지 모른다는 危險도 不無하다。 그러니까 이땅을 使用하게 되는 날이면 米國空軍의 日本襲擊이 더 容易해 질것이다。 또한 艦艇의 航進이 自由自在로 되리만치 科學이 發達된다고하면 이 路線이 艦艇의 航路가 될수도 잇슬것이다。

第二線은 산프란씨스코로부터 하와이、미드웨이、웨이크구아암、比律賓을 經由하야 日本橫濱으로 또는 中國上海 又는 英領香港으로 達하는 路線인데、이것은 艦艇의 航路인 同時에 飛行機의 航路이다。換言하면 海軍根據地인 同時에 空軍基地가 되는것이다。그러고 이線은 旣成線이다。

第三線은 前回로旣述한바와가치 파나마로 부터 에콰돌領갈라파고쓰島、佛領말크사스島、英領마로모르島等을 經由하야 比律賓에 達해서 中國으로 가는것인데、이路線은 旣述한바와 가티 只今은 다만 그런計劃이 잇슬뿐이오、事實로된것은 아니다。(上揭地圖參照)

何如間、이 三線이 完成되는날이면 米國空海軍의 日本에 對한 脅威는 實로 莫大한바가 잇슬것을 想像할수가 잇슬것이다。「그러고 空軍基地는 海軍根據地를 兼치 못하지마는 海軍根據地는 반드시 空軍基地를 兼할수가 잇는것이니까 一國의 近距離에 他國의 海軍根據地가 잇다는것은 空海兩方으로의 脅威가 될수박게 업는것이다。이런意味로 보아 米國이 比律賓에 海軍根據地를 가지고 잇는것은 日本에 對해서는 莫大한 脅威가 될수박게 업다。따라서 日本이 米國에 對하야 比律賓、구아암等地에 잇는 海軍根據地施設을 撤去해 주기를 希望하는 理致를 알수가 잇슬것이다。

何如間、以上 叙述에 依하야 米國의 太平洋橫斷을 爲한 三線이 完成에 가까울사록、또는 艦艇及 飛行機의 速力及 航續力이 增加하면 增加할사록 太平洋의 障碍性은 漸漸 減少하는 同時에 日米兩國間의 衝突의 危險은 漸漸 濃厚해 가는 傾向이 잇슬것을 알것이다。따라서 太平洋上의 海軍根據地에 對한日英米三國間에 何等의 制限協定이 업고는 海軍軍縮이 成立할수가 업고、또는 設使、成立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無意味한것임을 알수가 잇다。(終)

八面錄

◇『에디오피아의 領土를 伊太利에 割與할터이니 和協을하라고 英佛이 勸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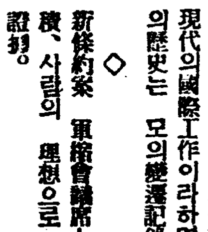
◇제 떡 나누어먹드시、남의 領土가지고 善心쓰라는 英佛이 더욱 可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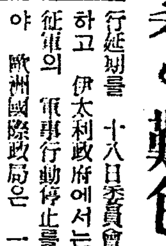
◇海軍은 總噸數二割削減을 主張하리라는米國이 空軍은 年八百機式擴張을計劃。

◇주머니에서 若干의돈을 끄내고、쌈지에다가 더만흔돈을넛는다하면 그個人의 富가 增大될것은明確。

◇목은모를깍고 새모를내는것이現代의國際工作이라하면 人類의歷史는 모의變遷記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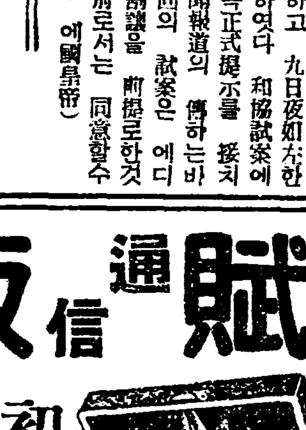
◇新條約案 軍縮會議席上에山積、사람의 理想으로 산다는證據。





月賦通信販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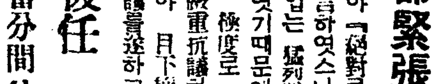
蓄音器界空前의大英斷!
日本서最初의蓄音器
月賦販賣!
ポリー號ポータブル
實質宣傳
가장 合理化的인 月賦通信販賣開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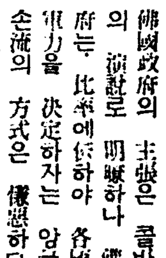
初回에는단 八圓으로高級ポータブル一臺及 레코ー드三枚針四百本을들님업시드립니다
月賦販賣說明書無代進呈
說明書申込處 名古屋市東區西魚町三
合名會社 近藤商店宣傳部

痔疾에는 오세로 치질藥으로 ¥0.30 ¥0.50
全國各藥店에잇슴

恩給 長期低利立替 他에比較할수업시最有利 信用잇는特色 照會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セブランス醫專病院

京城驛前 電本四七四〇
檢眼無料 眼鏡
檢眼 本校眼科敎授 本院眼科長 擔任

筆生
生動人婦女子最適의副業 無休永續
詳細通知함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盛文社

メルス

金儲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橙機械製造所

眩氣에 はれやか!

開店 十二月十二日
此商店은鍾紡이嶄新한考案과優秀한技術로써實現식힌新製品을여러분께보시도록하와批評을直接工場에傳하여주시여製品의向上을圖謀하기爲하야設備한것입니다아모조록有用하도록指導를願합니다。
京城本町 鐘紡サービス、ステーショ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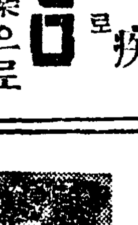
京城府民館食堂開業
地階 公衆食堂 一般食堂
階上 宴會場
三階 結婚式場 大宴會場
電話本(2)四六四九

廣告
來昭和十一年一月一日新年祝賀를爲하야 左記場所에서名刺交換會를開催하오니 多數參加하시와 賀意를交換하시기를 敬望하나이다
昭和十年十二月 日
記
一、會場 京城府民館
一、日時 昭和十一年一月一日午前十時三十分
一、申込場所 京城府
一、申込期限 昭和十年十二月二十八日

笑顏으로닥는

快適의齒磨

專賣特許 半煉의仁丹齒磨 一罐廿錢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三冊無料進呈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番
(規則書即送)

精神文化統制策
各部門을一齊彈壓
一面一社까지神社大擴立主義
注目되는文化新積極政策

긔독교계통학교의 신사참배문제는 쌍방의 주장이 매우강경하야 결국선교사측에서 무조건으로 학무국의 명령에복종하거나 그러치안흐면 선교사측에서 경영하는 학교를 폐교할것을각오하고 학무국과끗까지 항쟁하든가의 두가지길로 명백히 난위여며리이 첨예화되엿다 그런데 총독부에서는 이번의 신사참배문제를 긔회로 지금까지는 그리래도를 선명히 나타내이지안헛든 정신문화의 통제와 또는 사상의 통일에대하야 중대한결의를가지고 일정한코ー스로돌진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나타내이게되엇다한다 총독부에서는 이번문제가 이러나자 학무국、경무국、내무국의 상당국자는 문제를 극히중대시하고 신사참배문제의 대책에대한 협의를 수일전에 열고 단연 탄압정책을쓰기로하는동시에 오즉 학교뿐만아니라 사회의 모든방면 모든긔관에 잇서서 당국이 실시하고잇는 정신교육의 근본방침 문화지도의방침 사상통일에 관한 긔본정신등에 조금이라도어그러지는일이 잇다면 단연탄압율하야 정신문화의 통제를 단행하기로 협의결정하엿다 한다 그리하야 총독부에서는 이와가티근본방침을 결정하는 동시에 금후는 신사(神社)를 농촌에서는 한면을 단위로 일면일사게회으로 증설하며 사상선도에는 일전에 조직된 소도회(昭道會) 기타의 기관을 동원하되 경무국에서는 우선 신문 잡지의 취체에 대한 방침을 강화하야가지고 이상과 가튼 정신문화통제를 목적한 탄압정책을 일관하야 실시할터이라는바 따라서 당국의 이정책이 구체화하여가면은 금후 조선에는 정신문화의 모든 령역에 참담로 새로운 전긔(轉機)가 오게될것으로 보이어 그 추이(推移)는 자못 주목된다

參拜問題討議의 一切會合總禁止
警務局의腹案內容

긔보=긔독교계통학교의 신사참배문제로 말미암아 선교사측 대표자와 학무국장의 회견교섭은 구일에드디어 파렬되엇는데 문제의 발상지(發祥地)인 평양(平壤)에서는 로회(老會)의 총회를열고 대책을 협의하려하엿스나 대표자인 리승길(李承吉)씨가 마침잇지안흘뿐아니라 평남당국의 금지로 개회를 못하게 되엇는데 이에대하야 경무국에서는 각도에대하야 금후이문제의대책을 강구하기위한 모든회합은 일체엄금하도록 명령하엿다한다 경무국의 의향은 이미 당국의방침이 확정되야 각학교에업달한이상 이것에 순종할것이지 명백한문제를 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이러니 저러니 협의할필요를 인정치안는다는것이라한다 아모리 선교사라도 이미 학교당국자로서는 당국의명령에 복종함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종교단체인 로회가 무스까닭에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가하야 금후경무당국의 적극적 간섭과 탄압방침에 의하야 단연 엄중한 단속을 하게되엇다한다

教徒、牧師、老會等 四萬名一致結束
緊迫해진平壤의空氣

【平壤支局電話】긔독교 계통의 각학교 신사참배문제(神社參拜問題)에 대하야 그 참배여부를 토의하려고 평양 장로교(長老교)측에서 오는 십삼일 오후두시부터 평양로회(老會)를 개최하겟다는것을 돌연 지난 륙일 평양경찰서에서 금지를 하여왓섯다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이에대하야 그 로회 회장 리승길(李承吉)씨가 구일 오전열한시부터 평양서에 출두하야 그 서장과 오후여섯시에 이르기까지 중지를 하라는등 못하겟다는등 왈가 왈부를 거듭하엿스나 아모런 해결을 보지못하고 헤여젓는데 경찰에서는 오후일곱시에 다시금 로회장을 호출하야 재차 간곡히 집회금지를 권하엿스나 로회측은 어듸까지던지 집회를 중지할 아모런 리유가 업다고 이를 거부하여버려 경찰에서는 그러면 서장의이름으로 로회장에게 정식으로 직접 금지통고를 발하겟다고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간다면 할수업시 실력행사를하게되겟다고 말하야드되여 두차레교섭에 아홉시간이나 장시간의 토의로 타협의길을 차젓스나 서로양보함이업서 결렬되고말엇는데 장로교 경영의 각학교의 사활에관한 중대문제로서 이미 각회원에게는출석통지를 발하여노앗고 교회관계자와 목사들의 행동도일치되여잇고 평양에잇는 사만여명의 장로교인도 행동을 가치할것으로 쌍방의 태도가 자못강경하야 금후의 추이가 크게주목을 끌고잇다

◇…今年처음 銀盤의快技 —今朝清凉里에서—

坡州郡下에 覆面強盜
十五圓奪去

팔일 오후일곱시쯤해서 파주군 조리면죽원리(坡州郡條里面竹院里) 리자근성(李子斤成)(三七)이가 일산역(一山驛)으로부터 자전거를타고 자기집으로 도라가느라고 벽제면하설치(碧蹄面下雪峙)에 이르럿슬지음에 길엽흐로부터

大陸高氣壓奇襲
猝寒、半島를突擊
今年最初의低溫零下13.2
치위도今曉가絶頂

대설(大雪)이 되도록 물한번이 단단히 얼어보지못한 금년겨울! 『노ー윈터ー』인가보다는 우수운 의심까지 일반의 머리속에 인상깁게 너어주든 날시는 대설날에 철그른 구즌비를 내리더니 아연히비두에 형세가 일전하야 긔온이네리기 시작하더니 구일밤에 이르러는 땅속으로긔여들드시 네려가는 수은주(水銀柱)가 경성지방에서는 령하십일도를보여 거리에는 행인이끈치고 뷔인포도(鋪道)에는 북풍에 불리는 먼지가 룽트림을하야 금년들고 처음되는 치위를 보엿고 이에십일새벽에는 령하십삼도이분의 긔록적저온(低溫)을보여 시내각처에는 수도동이얼어터지고문고리에 손이드러붓는등 치위소동이 대단하얏다

이에대하야 경성측후소당국의 이야기를 들으면 평년에는십이월십일의 최저온도가 령하륙도엿는데 이번에는 령하십삼도이분이여서 평년보다 칠도이분의 급격한 저하를 보엿스나 치위는 구일밤부터 오기시작하야십일아츰으로써『클라이막스』에 올랏고 이제부터는 다시완화하기 시작하야 십일일부터는 차츰풀리리라는데 이번치위의 닥처온 까닭은 지난칠일에 황해(黃海)에잇든 저긔압이 조선을 횡단하야 가지고 천도(千島)렬도부근에가서 발달이되는동시에 대륙방면에서는 대륙고긔압이 갑작이발달하야 와서 일반적으로 이가티치위진것으로 원래조선의 겨울이란 중국대륙의 고긔압이 퍼저와서겨울이면 북풍이부는것인데 금년은대륙 고긔압의 발전이그동안업섯고 양자강(揚子江)류역의 더운바람이와서 치위를 보지못한것인데 그만큼 날시가 푸근 하다가 대륙고긔압의 긔습(奇襲)을밧기때문에 사람들이 치위에대한 저항력을 일어서더추운드시 늣겨지는 것인데 이치위끄테는 감긔가 만히 류행할듯하다고한다

平壤地方은 零下14.8
◇八日부터氣溫急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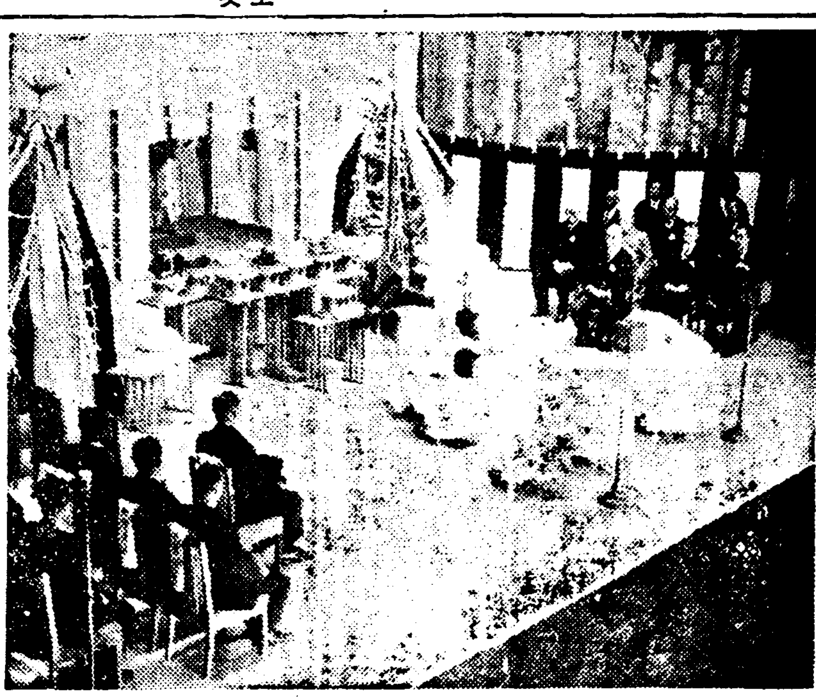
【平壤】팔일비나린후부터 평양지방의 긔온(氣溫)은 급격히떠러지면서 구일아침에는 금년긔록적긔온인 령하십사도팔분(十四度八分)에 달하엿다

飲食價引上後에 自由競爭의混戰
면면집은從前대로판다

지난초생에 부내조선인음식점조합련합회에서는 본정행방루(杏芳樓)에서 회원사십여명이토의한결과 탕반, 떡국, 온면, 냉면등은 전부 이십전 설렁탕은십오전식올려서 밧기로 결정하고 오일부터 실시하게되엿다고 부내 각경찰서 보안계에 계출하여왓슴으로 경찰당국에서는 할수업시 이를 인정하는동시에자유경쟁(自由競爭)에 맛기기로되야 영업자중 대련관(大連舘)등 면면집에서는 련합회의 협정에 참가치안코 종래대로 십오전식 팔고잇는중이다

漢江結氷
人道橋下에

【京南】활빙당(滑氷黨)에게 쾌보! 록파양양하든 한강은 지난팔일서부터 이틀동안 갑작이 치위진관계로 십일아츰 한강인도교아래는 약한분가량의 어름이 건너질려서 금년으로는 첫어름이라는데 이대로 치위가계속되면 금월내로는 넉넉히『스케ー팅』을 하게되리라한다



◇府民舘落成式盛大擧行—오십만원의 경비로본사사옥과 억개를 나란이하야 신축한 경성부민관(府民舘)은 십일 오전열시부터 동관대강당에서 락성개관식을 거행하얏는데 이천여명의 래빈이참석하야 대성황이엇다

어린애게 애업혓다
絶壁에墜落慘死
一般家庭에큰殷鑑

【京南】제몸도 못추스는 간약한몸에 어린것을 업펴노아서등집이무어운 관계로 언덕으로굴러떠러저서는 등에업힌 어린것울죽이엇사ー시외한지면 리태원(梨泰院) 사백십이번지 최수계(崔壽桂)의맛딸 입분(入分)(十)이라는 나흔지돌과 삼칠일박게아니된 어린것을 팔일오후두시경 그이웃에사는 박간란(朴干蘭)(十)이라는 어린소녀에게다 업혀주엇든바 그는제몸도 겨우추스는데다가 어린것을 등에다 업퍼주어서 빗틀거리며그 집뒤에서놀다가 고만 열자나되는 놉다란 언덕아래로 굴러떠러저 어린아이가혼도하야서 즉시응급수당을 가하얏스나 효험업시 구일아침에 무참히 죽엇다한다

公債僞造犯送局

【新義州】지난구일오후 봉천경찰서에서 적발한만철선 실상은행(滿洲殖産銀行)부활주 식산은행 ... 공채팔십오만원 위조사건은 그후 동아취조가 일단락이되어 구일오후에 주범 천촌이하 관계자열명을봉천총령사관에송국하엿다

【公州】살되라는 격언그대로 부내원정(元町)일정목 이십칠번지 복전정로원(福田精露院)주인은 자기병원에 오는손님이 먹다버리담배꽁투이를 올정월부터 오늘까지 열두달동안이나 대견하게모을 차곡도는 그은행 상무취체역 천촌정임(川村政任)등의 흔것이「피존」상자로 다섯이나되는것을 아호렛날이츰 룡산서(龍山署)보안계에 가지고와서 관내가난한사람들에게 논아주어달라고 부탁해왓다한다

異域에핀同胞愛
日給一圓八十錢의鐵工에게
눈물에刺戟된本報記事

지난팔일 시내동대문서에피의눈욱이어린 편지한장이 멀리현해탄(玄海灘)을 건너 동서보안주임(保安主任) 책상압헤 떠러저 읽는 사람으로하야금 끔직하고 아름다운동포애에 감탄시키고잇는 사실이 잇다 그는 본적을 전남완도(莞島)에두고 대판시랑속구류천정(大阪市浪速區柳川町) 사정목일천사백사십일번지에 잇는 김유봉(金有峰)(二七)으로 철공(鐵工)으로 단이면서 지난사일 본보석간긔사를 읽고 생활난으로 살수업는 홀아비가 어린두남매를 동대문서에 맛기고 행방을 감추엇다는 눈물어린긔사에 크게감동되야 동정을금할수업서 그어린애남매를 자긔가다려다길를테니 데려가게하여달나는것으로 일급(日給) 일원팔십전의 로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려가는 날이면 영원히 자긔형제가치 길르고 교육까지 시키겟다고 간청하는말을 가득실허섯다 차드찬 겨울날에 따뜻한 인정미가 가득찬 이편지를 손에들고 동서 리보안주임(李保安主任)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얼마전부터 귀보를 손에들고 이만혀 어린애를 달나는 사람이 만허지만 이처럼 먼곳에서 가륵한 동포애의귀여운뜻이 잇슬줄은 천만뜻밧입니다 보내주엇스면 조켓스나 어린애 황영수(黃永洙)(五)는 벌서 다른 사람이 데려가고 그애 누이는 경성보육원에 너주엇스므로지금은 엇절수업스나 그뜻만은 표창이라도 해주고십소이다』

깜부기寄附 [티끌모아태]

天氣豫報

大陸의 高氣壓은 南下하여오늘아츰은 黃河、揚子江流域에서 朝鮮과 滿洲로퍼지고거기서氣壓은 漸漸半島方面으로야터지고잇다 黃海道沖、能登沖과밋小笠原島北쪽에는 小低氣壓이잇서모다 東進하고 滿鮮地方은 大概天氣가조코 氣溫은 어제아츰보담 도리혀나려서 中江鎭에서는 零下三十四度로나렷다 日本內地는大槪흐리고 日本內地에는 小雨雪이잇다 京城地方과 京畿全區는오늘밤이나 래일 모다개이고때때로 흐릴터이다。

昨日最高 零下 四、三

最低 零下 一一、〇

今日正午 零下 九、三

運動競技

滑氷黨에快消息
清凉里링크完全結氷
昨年보다廿餘日일르다

滑氷黨에게 喜消息! 지난씨ー슨은 變態的氣候로因하야『스케ー터ー』들은 髀肉之嘆을 할지경이드니 겨우 一月五日에야 清凉里링크에서 첫滑氷을 開始하엿섯는데 이번씨ー슨은 意外로 二十餘日이나빨러서 昨今의猝寒으로 市外清凉里링크는 보기조케 結氷하야 눈빠른 氷上兒들은쪽 十日아침부터 스케ー팅을 開始하엿다 그러나 完全히 結氷하려면 이치위가 二、三日繼續되여야 遺憾업는『링크』가 작만될것으로 市內各男女學校에서는 校庭에다 스케ー트場 設備에着手하는等 바야흐로 滑氷黨들의 舞臺가 닥처왓다

世界빤담級選手權 에스코발選手獲得

世界빤담級選手權保持者『엘·사리카(뉴ー욕)』에對한『에스코발(페루드리코)』의 挑戰試合은 지난十一月十五日『뉴ー욕』바『매디슨·스퀘어』公園에서 行한 바 第三、九兩라운드에잇서『사리카』를『따운』시켜서 드되어 빤담級選手權을 奪取하엿다

朝鮮體育會 座談會
十二日、本社會議室

朝鮮體育會에서는 同會主催의 第十六回綜合競技大會經過에對한 所感과 今後改善方針을 樹立함에對한 意見을交換코저 來十二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朝鮮日報社會議室에서 座談會를 開催할터이라는바 綜合大會役員諸位는 無漏參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會費五十錢當日持參)

アモンパパヤ (아몬파파야)

죽은깨 여드름 검버섯……에 〃할로〃하고 불느는 그의 氏名은 아몬파파야 專賣特許의製法으로써 人氣를集中하고잇는 파파인酵素應用藥効크렘

見本瓶進呈 二錢切手書左記本舖에送付하라

▲一號普通……一圓三十錢
▲二號强度……一圓八十錢
▲化粧品店·藥店·百貨店販賣

東京市本所區龜澤町二丁目 本舖 杉田商店

好職業

男女適近不問自宅執筆業〇動人學生副業最良〇收多無休〇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金 銀 (福) 白 金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38) 〇九五九番 〇九九二番 〇二八五番 〇〇八八番

振替東京六八八番 受信略號(クフシイウケト)

平壤府旭町出張所

高血压·腦病 神経痛·喘息 中風

病根이되는濁한 血液을淨化하면完治

今津佛埋博士發見·淨化劑의好成績

견비통이나고、頭重、耳鳴、眩氣、動悸、喘息、便秘不眠症、神經衰弱、浮症、高血壓、痙攣、動脈硬化、허긋고、半身不隨 等은循環系의病源인 血液이탁하여서 循環이날부게로 일어남으로 血液을淨化하지안흐면안나은다。

따리잡는약으로有名한今津佛埋學博士는 血液淨化의良藥을發見하고 그服用과 病原에適當한 養生法을 갈으키여서 前記의症狀을조케하고 全國各地에서 依賴해온多數의病者를 깁가만라。地方에는書面依賴로親切한回答을하고良藥을分讓함、다음과가튼實例

恢復의歡喜 小生이血壓百九十以上으로견비통、頭重、神經痛과천촉症의宿病으로大學病院에通院하면서注射로血壓을내리게하엿스나 記의病狀은한결가치解消안됨으로異常스럽게生覺하고잇든바、突然腦溢血에걸녀서右半身不隨로臥病中、友人의推薦을바더서貴所의藥을먹엇더니、血液淨化劑와病原治療와의倂用으로一個月後의今日에서는 言語頭와腦明瞭하게되고執筆及五六町屋外散步도可能하게되것은오즉先生들의恩德이라고日夜感謝합니다(後略) 佐賀市 川瀨義雄

부게하고잇다 只今까지藥과療法에여러가지로 迷惑하고잇는분은 빨이信用잇는大阪醫學研究所 國本町 今津研究所에 依賴하여서 빨이全快되도록 하시라

十二月十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午後二時半、六時半) 【特別大興行】

R·K·O·라듸오超特作映畫 진자로자ー스、아이린 푸레드、아스테 主演 로바ー다

敗殘의青春을痛映畫、그러나純情한少女의三重奏、豪華絢爛한流行의粹、恍惚한音樂의메로듸!

◇R·K·O·라듸오特作映畫 뿌라이안、에한、장허룹드풀、루카ー스主演 泉(새암)

映畫藝術의新境地! 사랑과生活의泉은스사로솟아흘러 가운데잇나니、그外觀으로부터脫하여라、高踏的最高名篇!!

◇嵐寬壽郞映畫社全發聲 嵐寬壽郞 主演 荒木又右衛門

次週封切 사랑의避難所、夕暮의노래

全鮮第一 映畫殿堂 電光 九七六 團成社

十二月十一日부터 名畫鑑賞週間 晝夜二回 午後一時 七時始映

獨逸우파社超特作(日本版) 狂亂의몬테카ー로 全十卷

佛蘭西 반달에띠ー라特作(日本版) 紅髮(닌진) 全九卷

監督 쭈리안 뒤뷔ー에 主演 아리ー 볼 / 한쓰 알바쓰 / 로벨ー 리난 / 안나 스텐 / 루이 꾸ー뒤ー / 한쓰 류ー만

豫告 新劇團 青春座 第一回公演 十二月十五日부터晝夜二回

崔獨鵑作 悲劇 僧房悲曲 二幕三場
李雲芳作 社會劇 國境의밤 二幕
九月山人作 喜劇 爽兒一個百萬圓也 五景

主要멘버ー(無順) 黃澈、沈影、徐月影、朴齊行、金仙草、金鮮英、車紅女、李雲芳、洪海星 其他新進男女俳優二十餘名

竹添町一丁 電光3三二番 東洋劇場

十二月十日부터大公開! 폭스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월니암K하바ー드氏監督作品! 힘과榮光 스펜사ー도렉시氏 코린、무어ー孃 主演

悲愁交錯役으로有名한무어孃의獨特한演技가스크린에更生되엿다 名匠을어든이映畫! 果然損色이업는名作이다

太泰映畫社特作全發聲時代劇 古海卓二氏監督作品! 錄音松井翠聲氏 旅鴉お妻やくざ 伏見直江主演 山田好良助演

男性의危急存亡의秋를當하여俠起한義俠女劍客의血湧肉躍의壯烈復讐篇

大都映畫社特作現代劇 大江秀夫氏監督作品! 曉の淡渫船 準秀人氏主演 大岡怪童琴糸路助演

豫告=殺人光線、密林의荒獸

貫鐵洞 電光九五三 優美館

十二月九日부터晝間一回映畫 夜間演劇號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七時開演

晝間映畫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아레산다ー홀 애기의설움

松竹키네마社蒲田漁村篇音사운드 監督佐佐木啓祐蒲田夏期의超特作 海의兄弟 桑野通子、三宅邦子、南部耕作主演

十二月八日부터演劇號第二週特別公演 總指揮金昌俊 撮影孫男進 監督朴鎭月、進行金永守

三重連鎖劇 支那大活劇 暴風이지난뒤 全二幕十三場

文藝部提供 新劇 그女子의마음 全一幕

李和案 喜劇 五十九分 全一幕

仁寺洞 電光三二三 朝鮮劇場

현대의미발술은 퍼머넨트·웨이브 ②

吳淑根

다시말하면 직선(直線)은 한계(限界)를 의미(意味)하며 정지(停止)를 표시하지만 곡선은 동(動)을 의미합니다。곡선(曲線)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연장(無限延長)을 추상(抽象)식혀줍니다 그럼으로 짜른머리도 이웨이브로해서 마음에 길어지고 보기에길어보이는 큰 효과(効果)를 나타내게되는것이 사실(事實)입니다。

『웨이브』의유래로말슴하면 서양사람의 천연적 꼽수머리에서 시작된것입니다。그네들의 자랑인『뿌론드·헤아』는 의례히 꼽수머리가 제격입니다。그러나천연적『웨이브』도열대여섯살때부터는 차츰업서저갑니다。이때문에 인공『웨이브』를가지고 타고나온『내추랄·웨이브』를보전하라는 노력의결과가 오늘날까지 시행되는 소위『마-쎌·웨이브』입니다。불국사람『마-쎌』씨의 발명으로서 씨는십여년전까지도 생존하얏스나 그후의 소식은 모르겟습니다。『마-쎌·웨이브』로말슴하면기술자의 전문적기능이아니고는머리를상하기쉽습니다。함부로화저가락을달엿다노앗다하는동안에 머리는 여지업시바숴어지고、비치변하게됩니다。기술자로서도여간숙련(熟練)을싸치아니하면 안됩니다。미안(美顔)에는마찰(摩擦)이중요한역할(役割)을 가지고 잇지만、머리만은넘우시달리면약하야지고、잘사라지안습니다。더군다나 불로밧삭지저 태운다든지하는것은 모발위생상 크게주의할일입니다。

머리는 가위로 베여도 알풀지안코 불에지저도 뜨겁지아니하다고 막우덤분다는것은 심한착오입니다。현미경으로 검사를하야보면 머리카락은 마치발이나 외넉출처럼 속이비고 그속에는 투명(透明)한 풀(膠)이들어잇는것으로보아서 손톱발톱가티 자라는대로 깍가버리면 그만의것은 아닙니다。극단으로우리가 다시편발아동(編髮兒童)이나 남자로서 엇더한 형식으로든지 머리를 길게길으는시대를 가지 또다시 맛날는지 누가알겟습닛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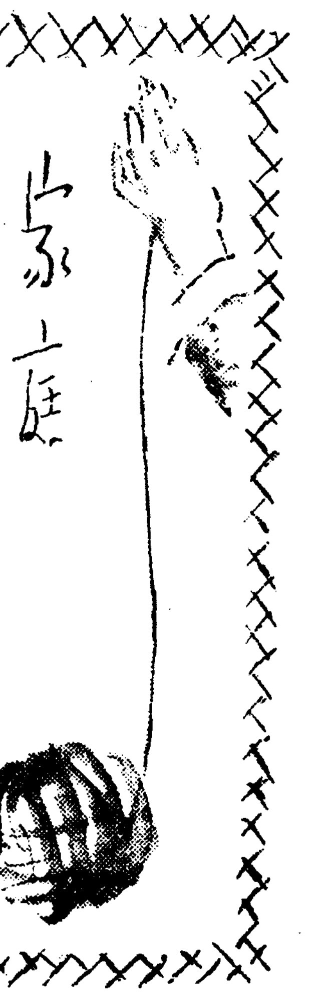
그러고『마-쎌·웨이브』는 한번하고나서 오래가야 겨울날에는 사흘이면 고작입니다。그안에라도 물에만 들어가면 금시에풀려버리는까닭에『웨이브』를 보존하는데 만흔주의를 하지아니할수업고 또 사흘만큼식 번번히 다시한다는것은 시간상 경제상으로보아 좀생각할여지가잇지안습닛가。이러한관계로 구미(歐米)에서도、오래동안 여러가지 기술가의머리를 쉬인결과에 발명한것이 소위퍼머넨트·웨이브라는것입니다。

올가을에 미국뉴욕에서 열린 미용사대회에서『퍼머넨트웨이브』삼십주년기념대회가 거행되엿섯는데 창시자(創始者)인『놀스네슬러』씨의 입장연설이잇섯답니다。구미에서는 발서삼십년이나되엿것이 조선서는 인제서야 처음으로 저의 미장원에서 실시하게되엿것은 너무나늣젓다고하겟스니 한편으로는 깃분일입니다。

『퍼머넨트』라면 영구불변(永久不變)의뜻입니다。이법으로 머리를한번지즈면 언제까지든지풀어지지안코 (필요가잇서서、풀어버리지라면、그는자유로할수잇습니다) 물에들어가든、비와눈을맛든 웨이브가 나타날뿐、감하고나서보다도 수일을지나서、데욱선명하야지는것은 도로혀이상하다고하겟습니다。

그런데『퍼머넨트』라면 근년까지도전열기구(電熱器具)를 사용하는、거대한장치를 요구하얏고 또한번 하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렷습니다마는、이러한 거치장스럽고、불경제의 일을 하고안젓기에는 근대여성의 신경(神經)으로는 넘우나 고통입니다 머리 깐다하면 머리를 묵사발을 만들어놋는 위험이 잇섯슴으로 기술자의 여간 숙련한 솜씨가 아니고는 안심을 못하얏습니다。그래서 오랜 세월을 두고、이 폐해를 업시하고 또 간단한 긔계를 발명하기에 여간 고심이 아니엿습니다。최근 미주에서 발명된『퍼머넨트』는 약품과 손으로만 훌륭히『웨이브』가 됩니다。머리에 아모런위험도 변화도 일으키지 안코 완전하고 영구한웨이브를 할수가 잇습니다。일주일에 한번식 손질만하면、언제까지든지 풀리지안는『웨이브』가 될수잇습니다。손질하는것은『세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손으로만하는 화저(火著)를 달구어 머리를 괴롭게구-는『마-셀·웨이브』는 벌서 시대지(時代遲)의것이 되엿습니다。저는 모발위생(毛髮衛生)상으로 보아서 극력으로 이『퍼머넨트·웨이브』를 권하고십습니다。

그런데『퍼머넨트』를 흔이여섯달간다고 말슴하나 이것도웨이브가 그동안에 풀린다는말이아니라 머리는 하로에 대개일리삼모(一厘三毛—〇、四耗)한달이면 약사푼(約四分) 여섯달이면 두치닷분이나 자라는까닭에『웨이브』한부분(部分)이 그만큼뒤로물러가게 됩니다。이까닭에 각금 그새로사라난 부분만『세트』를 하여야합니다。



겨울에는 애기를 어데서 놀게할까

그러나 날차다고방속에 가두어둘수업고 함부로 박게내놀수도업는일

날이 이러케 치워 지니까 애기네들도 박게나가지를 안코 방속에서 놀게 됩니다。좀 넉넉한 댁에서는 방이 넓거나 여럿이라 아모 문제가 업겟지요만은 그러치 못한 댁에서는 애기네들이 뛰고 떠들어 여간 수선과 여간 곤란이 아닙니다。그러나 어른들이 수선스럽고 곤란한 것도 문제지요만은 그러타고 해서 애기네가구박에 지천구에 긔를 못 펴는 것도 실상 큰 문제입니다。커가는 애기네들은 자꾸 긔운에 뛰고 떠드는 것이어니 그것을 터퍼 노코 야단만 처서 금지시키련다는것이야 말로 무리한 일입니다。그러면 엇떠케 할까요? 어린애기네를 소중히 아시는 어머니님과 누님께 한말슴 드리나이다。

첫재 칩다고 해서 애기네를 꼭 방속에 가두어 두려는분도 게시나 그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아츰 저녁으로 청히 치운때야 모르겟지만은 볏살이 좀 퍼진 한낫쯤이야 갓금갓금 내 보내서 놀리는것이 조치 안습니까? 방속에만 꼭 가두어 두는 것은 몸으로 보아도

건강케하는도리

가 아니려니와 정신상으로 보아서도 몹시 비겁하고 잔약하게 맨드는 것입니다。설사 제가 나가려고 안하더라도 갓금 띄여서 내보내는 것이 조치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애기의 신체를 잘 보아 가면서 해야됩니다 만일에 몸이 아조 쇠약하거나 감긔스긔운이 잇거나 한때에는 제가 나가더라도 붓들어야지 안 나가는 것을 띄여서 내 보낼 것이 조금도업습니다。

×

둘재로는

어른이성가시고

귀찬타고 해서 아조 치운때에도 박그로 쬐어 내 보내시는 분도 게시나 그역시 잘못된처사입니다。그래다가 감긔가든데 걸리거나 수족에 동상이 생긴다면 도리어 더성가시고 귀찬케 될것어아니오니까? 다소간괴롭더라도애기네를 키우시기 위하야 그괴로움을 참으서야 합니다。작구우박이나 주고 꾸중이나 하시면 될 수가잇습니까? 물론

작난감가든것

이 잇다면 그런것을 주어서마음을 부치고 잘 놀게하는것이제일 조흔 방법이요 그러치못하더라도 언한구석에서 저의끼리 뛰고 떠들도록 내버려 두는수밧게 업습니다。아조 소란하야 못 견될때라도 야단치고 따리는것보담은 타일러야 합니다。

×

그러나 아조 자유로히 교육시킨다고 해서 문을 찟거나 말거나 장판을 뚤커나 말거나 모도 방임하는 것도 결코 아니 올씨다。어려서 부터 해

조흔교육방법은

서 조흔 것 나쁜 것을 잘가르치어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표준을 세워 주지 안하서는 안 됩니다。그 반면으로 작난감가든것을 곱게 가지고 놀지 못 한다고 걱정을 하시는것도 또한 조흔 교육방법이 아니 올씨다。커가는 애기네에게는 종완패스러운 긔풍이 잇는 것이데 그것을 작난감을 가지고도그긔풍을 펴지 못하게 할수는업는노릇입니다。

家庭醫學

눈섭끈허지는병

問 당년삼십세남자인데 집오년전부터 눈섭털이 중간이끈허젓다 제대로잘아고 또끈허지고 하여 지금은미모가 아조적습니다 혹간가렵기도하나 탈모는되지안습니다 끈허진 부분을보면 마치 칼노빵둘여노흔듯 합니다 병명과 치료방법을 자세히갈으켜주시오 (一讀者)

答 특발성모발절단증(特發性毛髮折斷症)이란병입니다 미모전부를 깍가버리고서 다음에처방한약을 써보시요

石炭酸 一、五
사리치루酸 一、五
치오놀 三、〇
黃色와세린 三〇、〇

(大學病院小兒外科 金晟鎭)

살스결안트게하는법

찬바람쐐일때에는

치운때는 살스결이 잘터집니다 사람에따라서 다혈질인분은 볼이 자주빗가티 되여서 화장하기 매우곤란합니다

살스결이 안트게하는 예방법은 밤에 취침하기전에 반드시 나제 화장한것을 말끔이 닥거 바려야합니다 분을 닥거바리는 대는 콜-드크림과 올리부유를 쓰되 올리부유는 화장을 두텁게하는때 조흡니다

그방법은 올리부유를 조금 똣하게해서 얼골에바르고 까-제로 닥거내면 아무리 두터운 화장이라도 얼골이 상하지안코 아주곱게 닥거집니다

보통화장은 콜드크림을 얼골에 바르고 까-제로 닥거내고 그다음에 손구락에 크림을 뭇처서 약간약간 마찰을해두면 주름살도 펴지고 부드럽습니다

살결잘트는분은 아츰에 세수하기보다 양치와 눈만씻고 화장수로 닥는것이 피부에는 조흡니다 비누로 시츤후 화장을하면 분이잘먹지 안는수가만습니다 볼에 자주색나는분은 혈액순환을 잘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한대 역시 콜-드크림으로 마찰하는것이 제일입니다 혹은화장수를 탈스지면에 뭇처서 탁탁치기도 합니다

마찰하기 전후에 뜨뜻이 축인 타올로 얼골을 닥그면 혈액순환도 잘되고 피부에도 조흡니다 너머 뜨거운것은 도리혀 피부를 상하는것이니 반드시 따뜻한 물에 축이십시요

한다음에 곳 찬바람을 쏘이지 안는것이 조흡니다 외출할때는 크림을 홍북바르고 그위다 화장을 하십시요

무쇠王子

崔秉和

그러나 무쇠왕자는 또 셋재공주와 두분형님을 차즈려 가지안흐면 안되게되엿습니다。그래서 부지런히 길을걸어가닛간 울퉁불퉁 마른풀속에서 애처러운 소리가 새여나왓습니다。

왕자가 갓가히가서 보닛간 조고마한 구렁이한마리가

『저는 이근처를지히는 임금님 구렁이의 딸인데 오날 동리아이들에게 붓잡혀 지금 타죽게되엿스니 살려주십쇼』하고 애원하엿습니다。

무쇠왕자는 즉시 불을끈다음 살려주엇습니다。

『왕자님 댁으로 살엿습니다。저의집에 오십시요。집에잇는 물을 살려주신은혜로 드리겟습니다。그런데 왕자님 우리아버지가 금과은을 주시여도 그것을 밧지마십시요。그리고 제일 비리먹고말는말과 제일 녹스른 칼과 제일 더러운 갑옷투구를 달나고하십시요』하고 아르켜주엇습니다。

왕자는 구렁이성에가닛간 님금구렁이는 딸의이약이를듯고 그은혜로 보물을 만히 끄내놋코 가지라고하엿지만 왕자는 딸이가르켜준대로 네가지물건이 갓고십다고 말하얏습니다。

왕자의말을드른 님금구렁이는 『당신은 참 영리하신분이요。이 제일녹스른칼은 엇더한 기운만흔놈과 싸우드래도 지지안는칼、이 제일더러운 갑옷투구는 수백번 맛거나 칼이다혀도 베여지지안는 갑옷투구、또 이 제일 비리먹고말는말은 제일빠른 말입니다』하고 네가지 보물을 앗겨업시 왕자에게 주엇습니다。

왕자는 깁히 고마운 치사를 하고 그말을 탄다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길을 재촉하엿습니다。그러자 얼마안가서 대가리 열둘달린 룡왕의 성에 다다럿습니다。성안에 붓잡혀잇든 셋재공주는 무쇠왕자를 벌서 먼저보고

『아! 너 여기는 머리 열둘가진 룡의 내외가 산다。그리고 나만 잇는것이 아니라 두올바까지 붓잡혀서 지금 불에 구어먹을랴고 하는참이다』하고 울엇습니다。

『누님 우지말어요 내가 룡왕 내외를 한매에 때려누일터이니』하고 무쇠왕자는 룡왕내외가 잇는 방으로 뛰여드러갓습니다。

『야、이놈 룡왕아! 대가리 여섯달린 룡과 대가리 아홉달린 룡을 죽인 무쇠왕자가 너하고 싸홈하러 왓다!』하고 큰 소리로 말하엿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가리 열둘달린 룡왕은 화가 머리끗까지 치미러올나가지고 즉시 넓은터전으로 무쇠왕자를 데불고가서 싸호기시작하엿습니다。

셋재공주와 형님두분은 벌벌떨면서 나와섯습니다。룡왕의안해도 입으로 불을토하면서 나왓습니다。

무쇠왕자는 투구의끈을 잔뜩 졸라맨뒤에 말등에 뛰여올나 저서 칼을 휘둘으고 덤벼드럿습니다。머리 열둘가진 룡왕은 투구를 몇십번이나 물어뜨드도 험하나 생기지안코 꿈작도아니하므로 몹시허둥대엿습니다。

그사이에 무쇠왕자는 룡의머리를 하나비고 둘비고 나종에는 모조리 베여떠러트렷습니다。

이꼴을본 룡왕의안해는 이것은 당하는재조가업다고 생각하고급히 말을타고 어듸로자 도망해버렷습니다。

이러케해서 무쇠왕자는 누님과 형님을 구해가지고 아버지계신 대궐로 도라갓습니다。(끗)

十日 (火曜)

◇午後六時 하-모니카合奏

一、五重奏 小夜曲…드리고作曲
二、二重奏 하란도르…비제作曲
三、五重奏 圓舞曲『午前三時』金坡鶴作曲
四、二重奏 메르시안·댄쓰…아렌作曲
五、五重奏 戰勝旗아래로…부론作曲

五重奏團
曾專 하-모니카 白聽圭
第一 하-모니카 白鶴基
第二 하-모니카 金容虎
第三 하-모니카 黃碩夏
第四 하-모니카 鄭柄翊
第五 하-모니카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明倫學院講師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講話 國境警備慰問에對하야 申錫麟
◇同八時 大쪽과伽倻琴併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가)박타령 (나)春香歌中 自嘆歌 大쪽 金海仙 鼓手 朴鍾基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東) 管絃樂 『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 -산사-ㄴ스誕生百年記念演奏會- 交響曲第三番 c短調 第一樂章 第一 아다지오 第二 포코·아다지오 第二樂章 第一 알레그로모데라-토 第二 마에스토-조 新交響樂團 指揮 마그나웁강 大中寅二 山田耕筰 德川頼貞 人事 메르난·피아라
◇同九時一〇分 浪花節 一、大石의妻子離別 二、紺屋高尾 吳德重

十一日 (水曜)

◇午後〇時五分 平壤歌外 一、平壤歌 二、山念佛 三、자진博物歌 四、사발가 五、노래가락 六、장부打令 大笒 伽倻琴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兒童과敎에對한觀念
◇同六時 唱歌 府內私立普通學校兒童慶賀 一、合唱……東大門女學校五、六年生徒 二、獨唱……阿峴女普四年金龍玉 피아노伴奏 李仁煕 指揮 金炳子 同 李有淳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處世之要道 金德文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고호와近代畵 張勃
◇同八時 歌詞 一、漁樂 二、黃鶴詞 金蕉紅 翁貂紅 大笒 金永根
◇同八時三〇分 四重唱 一、내너를그리워 二、물네방아 三、산양노래 四、어엽븐수래로 五、내사랑아 六、위태해요 延禧四重唱團 第一테너 李仁範 第二테너 毛麒允 第一뻬이스 金道集 第二뻬이스 尹弘基
◇同九時 連續講談 千觿의狂(一) 庾秋齊

十二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東) 木曜콘사-트
◇同三時一五分 家庭劇 家庭과流行 任永信
◇同六時 童謠와少女劇 一、童謠 1齊唱 비누방울 2獨唱 물새발자욱 3齊唱 실비 4獨唱 물오리한상 三、少女劇『여보서요』全一景 獨立門主日學校兒童 指揮 柳基興
◇同六時二五分 우스운이야기의밤 옷음의心理 李晶燮
◇同七時三〇分 趣味講話 웃음의大學 金尙鎔
◇同八時 音律 靈山會像中 玄琴 李彦植 洋琴 李承煥 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笛 趙敎弼 杖鼓 李息夏
◇同八時三〇分 平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寧邊歌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開城난봉가 七、방아타령 白牧丹 鄭綵紅
◇同九時 連續講談 千觿의狂(二) 庾秋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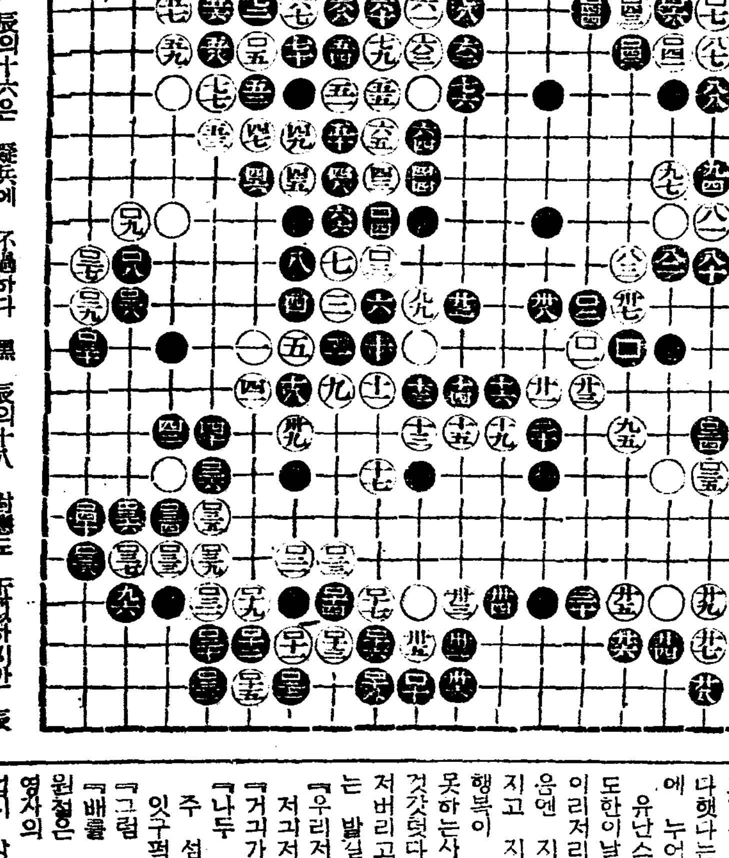
曆

十二月十一日 (水)
十一月建戊子 (大)十六日
辛酉·木·嵯 收
●大雪八日(舊月十二日)
●冬至廿二日(舊月廿八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9=

白 丁奎春
黑六點置 李英鎬

○一二九 未의九
●一三〇 未의十
○一三一 辰의十六
●一三二 辰의十八
○一三三 巳의十五
●一三四 巳의十四
○一三五 辰의十四
●一三六 午의十四
○一三七 午의十五
●一三八 未의十五
○一三九 辰의十五
●一四〇 未의十四
○一四一 丁의三
●一四二 戊의三
○一四三 戊의二
●一四四 己의二



◆秦極文氏評 白 辰의十六은 疑兵에 不過하다 黑 辰의十八 對應도 近似하지만 辰의十五로 除함이 差强할것이다 白이 巳의十五로 除함을 黑이 巳의十四 白中間을 探進함은 容易하지못할點이다 참 奇點이 아닌가 白이 午의十五로 圍出하야 先手로 丁의三 戊의二로 黑一點을 打取하니 黑 不及情勢는 於斯에 見定로다

短篇小說 惡夢 【九】

咸大勳 作
夕影 畫

『………』

칠흑의 순간이 흐르는동안 그들은 무슨약속이나 한것처럼 두눈을 비석우에 샛인채로 떠러질줄을 몰랏다 퐁은한 가울볏이 그들의등을 쓰다듬고 비석위로 흘러 간다。

영자는 문득 도라가신 어머님 생각이 가슴을울려찌르르함을늣겻다

『어머님도 저러케 땅속에 차거운몸을 눕히고 잇겟지? 이름도업는 그무덤속에…』

영자는 기억조차 몽롱한 어머님의 얼골을 생각해보앗다 그리고 호화로운 비석까지선 이묘지들을 밟아보며 상석돌하나 업시 쓸쓸한 공동묘지에 무친 자긔어머님무덤을 생각하고는 너무도 그초라한 양에서 려움이 북바처오름을 금할수가 업섯다

영자는 아지못하는새 두눈이 뜨거워옴을 늣겻다 『그만가요!』

영자는 그만발길을 돌릴수 박게업섯다。

『갈가요!』

영자의눈에 이슬이 매친것을보자 원철도 황망이 떠러섯다。

그들은다시 비탈길을 더듬어 강가로나왓다 드나는 물결 오고가든 배들도 이제는 한일을 다해다는듯이 한가로히 강기슭에 누어잇고 강물은 맑다。

유난스럽히 늣가을볏이 따스도한이날그들의 발길은 강가로이리저리 허트러젓다 영자의마음엔 지난모-든 슬픔도 살어지고 지금 원철이와 것고잇는 행복이 가슴에 넘처흘러 아지못하는사히에 긔분이 변전되는것갓텃다、경숙이남편이란것도이저버리고 자긔의 애인인양영자는 발길을 나란히옴기엇다。

『우리저-기나 건너가볼가요!』

『저긔저섬가튼데요!』

『거긔가 어듸야요?』

『나두 어듼지는 몰라두 아-주 섬가치 뵈서요 절(寺)두잇구퍽 묘해요』

『그럼 어떠케가요?』

『배를 타야죠』

원철은 말을 내던지듯 하고는 영자의 대답을 기다릴 사히도업시 강기슭에잇는 조고마한집쪽으로 달려간다 얼마잇지 안허서 그는 어떤 수염만흔 선부하나를 데리고 와다

『자…타시죠』

조그만 목선에 그들은 나란히 안젓다 늣가울이라 하지마는 첫여름가치 퐁은한 이날은 강바람도 시원하엿다 딴세상에나 가서 아-주못만날 파랑새를 품에 안은듯이 영자의 마음은 끗업는 히열속에 가슴이 뛰엿다。이것이 사랑의 로맨스라 할것인가? 여자의 마음이란 홍점이라할가? 배는 흘러흘러 십오분도 못걸려 강건너 섬가튼 기슭에 대엿다。

그들은 배에서 나리는길로 비탈길을 더듬어 돌시개 언덕을 울라갓다 구비구비 언덕길을 돌아 한참동안올라간곳엔 조그마한 집하나가 외로히 서고 잇섯다

『여긔서 어떠케 사람이 살어요』

전보담 훨신 유쾌한빗을띈 영자가 원철의 얼골을 바라볼때

『다 사람은 제자미로 사는게죠』

하고 무슨 철리나말 하는것처럼 대답햇다

『그러치만 참이런곳에서 단두사람이 산다문 퍽자미잇겟서』

『부부 로빈존쿠-루소가 돼볼가요?』

『호호 참 퍽자미잇겟네』

그들의 발길은 다시 그위에 잇는 법당근처까지갓다 조고마한게 그래두 절형식은 때가추엇다

『룡화사(龍華寺)! 참여긔 무슨절이 잇슬가?』

영자는 현판을치어다보며 혼자중얼그렷다

『글세요 절이란 사바세상과는 떨어야한다니깐 아마 인가가 더언 이절해고도(?)에 세운모양이죠 참 저-긔를봐요 한강의푸른물이 구비처흐르구 저-긔 모-든집들이 눈압에 보히잔어요? 여긔서보니 모-든 세상사가다 우서 보히죠?』

『참 그래요! 그런데 날세가 웨 이러케 갑작히 호려질까요?』

『괜찬켓죠 가을날이란 호렷다 개엿다하니깐! 아무쿠 저녁이나 식히고 오죠』

『어듸서 저녁을 먹어요!』

『저 절에서요!』

하고 원철은 일어섯다

大人의感氣熱에
アンチピリン丸 (안치피린환)
特히頭痛·肩腰痛感冒에安全好適

定價二十錢부터德用一圓 各地藥店에잇슴
發賣元 丹平商會 大阪·東京

어린이의감기熱에 オイン (오 이 인)

幼兒의胃腸에조금도害업고 安全하게下熱식히는良藥
겨울家庭에가추어두라!

兒童에게는 兒童의藥
大人의解熱藥은 兒童들께過度하여胃腸을害침으로써注意하지안어서는안된다
반드시オイン을먹여보시오特히小兒의體質에마즈며조금도劇한作用이업다
◇安全하고 먹기쉽고
◇쑥쑥쑥쑥 熱이나리고
◇벙글벙글 元氣로회복
小兒專門藥
主効 감기、熱、유행감기、肺炎、麻疹、百日咳、其他熱에好適

學藝

乙亥年의創作決算 朝鮮의作家는어데로?
―朝鮮의作家는어듸로?―

③ 嚴興燮

그러나 우에서 말한바의 作家로서 世界觀이 樹立못되엿다 하거나 朝鮮的 特殊性을 把握 못햇다하거나

【創作】 方法을 消化도 하고 거긔에 못로혀 사로잡히엿다는 말은 作家全般이 그러타는 말은 아니다。

구래여 指定은 避하거니와 過去에잇서 그存在가 甚히 微弱하던 作家로서 眞正한 世界觀을 樹立하려고 一年間의 꾸준한 努力과 苦悶이 뵈여지는作家, 그리고 朝鮮의 特殊性을 正當히 觀察하고 把握하려는 意欲的인 關心과 眞實한 態度를 뵈여준 作家를 發見할수 잇섯슴은 否認할수업는 기쁜傾向의 하나라 하지안흘수업다。

나는 다음에 今年間의 主要作品을

【題材】 別로난우어 至極히 短片的이나 그內容의 特質을 一瞥할가 한다

農民生活을 主題로 한것들로 李箕永氏의 『元致西』 李無影氏의 『萬甫老人』과 『山家』 朴花城氏의 『旱鬼』 新人으로 安東炎氏의 『山비둘기』가 내記憶에 새롭다。

그러나 여긔에말한 내 記憶에 새롭다는 말은 決코 그作品들이 모다 훌륭할데 업는 傑作이란 말과는 그距離가 멀다는것을 알어야한다

『元致西』는 地主階級의 典型的 非人間性을 暴露하고 아울너 貧農階級의

【沒落】 過程을 描寫하고 또한 그들의 밟을길을 暗示한 作品이엇으며 『萬甫老人』과 『山家』 亦是 農民의 生活水準과 그들의 意識의 發展過程을 ―特히 萬甫老人에잇어― 그린 作品이엇고 『旱鬼』라는 한 自然現象으로 因하야 影響되고 起伏되는 農民生活의 諸事實과 아울너 宗敎의 盲信者가 그 陶醉되엿든 信仰의꿈으로부터 解脫되고 覺醒되는 過程을 그린作品이엿다。

『元致西』에잇서서의

【健實】 한文章과 洗練된描寫는 『萬甫老人』 『山家』에 잇서서의 리알한 手法 『旱鬼』에 잇서서의 緻密한觀察, 沈着된 描寫는 모도가 該作品들의 特徵을 規定한다。

新人安東炎氏의 『山비둘기』는 春窮과 飢餓대문에 自己의妻가 地主와 姦通한것을 目擊하고도 그대로 默認해두엇다는 事實을 取扱한 作品으로서 農村을 主題로한 今年中의 新進의作品으로서

【注目】 할만한作品이엇고

勞働者(工場을中心한)의生活을 主題로한것들로는 李北鳴氏의『工場街』『關南의生活表』『午前三時』等이잇다

前記 農民生活을 主題한作品數에比하야 勞働者의生活을 主題한作品이 比較的 極小한것은 北鳴氏와가튼 勞働者出身의作家가 朝鮮文壇에 만치안키때문일너지도 모른다。

『工場街』는 昌洙라는 一勞働者를通하야 絶望속에빠지기쉽고 哀愁的氣分을 갓기쉬운요지음 勞働者의性格에다 새로운 壯快와

【健實】 한 意氣 그리고 새로운 出發點을 敎示한作品이엇고 『關南의生活表』는 關南이라는 工場勞働者의 給料生活을 그리되 그것을 農民生活과 有機的으로 關聯식혀 그交觸을 通하야 地主와小作人關係를 解剖햇고 勞働者로서 職場을일코 失職靑年이되는 過程을 그리려 努力한作品이다

그리고 朝鮮의所謂인테리階級의 한典型을 그리려한

【作品】 으로 兪鎭午氏의『金講師와 T敎授』가잇다

한때의 階級意識에 눈이떠여 良心的苦悶을 하든主人公이 그가 知識階級인이기때문에 沒落되는것、無氣力한것、卑怯한것을 如實히 暴露한 現下朝鮮의 인테리의 末路를그린 한典型的作品이엿스며 漁村에서 取材한 作品으로서는 金起林氏의『繁榮記』와 新人金沼葉氏의『鰕村』이 잇다

『繁榮記』는 現下資本主義社會에잇서서의 漁民生活의 그巧妙하게 搾取當하고잇는 一斷面을 그리려햇다。

【感覺】 的인描寫와 리알한 手法으로 그린作品이엿고 『鰕村』은 漁村이 騷村되여가는 沒落相을 그리려햇다。

鑛山을主題로한 作品으로 宋影氏의『福順이』와 新人 金裕貞氏의 『금따는콩밧』等이잇다。『福順이』는 一鑛夫生活의 現實的一面을 通하야 鑛産勞働者의 生活水準을 그리는同時에 『福順이』라는 한개鑛夫의 딸의 都市로 팔여가는 悲劇的인 過程을 그림으로써 勞働階級의

【不安】 과 慘憺을 레알하게 呼訴한 한典型的作品이엿고 『금따는콩밧』은 金鑛熱이 潮水처럼 밀여들어와 虛榮에 날뛰며 一攫千金의 夢을 꿈꾸는 一面相과 또한그 罪업는 虛榮心이 비저내인悲劇의한도막을 그리려한作品이다

海西紀行

⑤ 朴花城

나는 바로 그압헤잇는 瑤琴亭에 올낫습니다。머리를 들면 사면에 屛風처럼 둘러잇는 그림가튼 뫼의 風景이 눈으로 들어오고 발아레로서는 시내의 차고 맑은 속삭임이 쉬지안코 기여옵니다。내몸에 돌고잇는 塵世에 더럽힌 더운피까지도 淸淨하게 식혀줄듯한 저 물소리 저 뫼와 저물에서 풍기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오오 이것은 俗世를 떠난 別個洞天임에 틀림업습니다。

일즉 말노만 들어보고 그事實을 否認하든 仙境에나 들어온듯 如癡如狂의 無我之境에서 한참을 멍-하니 안저잇다가 내눈이 仙境에 익어지자 비로소 압으로보이는 그秀麗한 뫼의바위面에 삭여진『隱屛』이란 두글자가 읽혀집니다。

얼허니 이끌이야말로 高山의 九曲中에서도 가장 뛰여나는 絶景인 五曲隱屛입니다。

中宗三十一年(丙申)十二月二十六日에 江陵北坪에서 出生하야 中宗、明宗、宣祖、三代의 朝廷을거처 四十九歲의 一生을마친 文成公 李珥先生이 그의 晩年時節에 벼슬길에서 고달핀 心身을 休養하려고 가만히 잡어노흔곳이 즉 이 石潭洞天이며 그의 가장 놉히는 스승 朱子의 武夷九曲을 본떠 이곳의구비진곳을 가려서 九曲이라일흔것이 즉이高山의 九曲입니다。

九曲은 一冠巖、二花巖、三翠屛、四松崖、五隱屛、六釣灘、七楓巖、八琴灘、九文山인데 栗谷이 이럿케 九曲을 무어노코서 벼슬을 辭免하고는 이九曲에서 놀며 朱子를 배우든것으로 勿論 이隱屛도 武夷의 大隱屛의 뜻을 取한것이라 합니다。

隱屛은 이러하려니와 남어지 八曲과 이왕 온길이니 書院이니 精舍니等의 遺跡을 구경하자면 案內者가 잇서야 될러이겟기로 나는 다시 물을 건너가 넘어젓스나마 크고놉흔기와집의 소슬대문안으로 쑥들어갓습니다。

우선 내구두발소리에 놀낸개 세마리가 왕·하고 짓기시작하더니만 내 차림차림에 거들들 내모양으로 와락 달녀들며 사납게 짓기 시작합니다。村家의 개는 웨 크기조차 그럿게도 큰지 누렁개 한마리와 검정개 두마리가 솟발처럼 압뒤로 달려드는대야 본시 小膽이오 더구나 개라면 白晝大路上에서도 무서워 쩔쩔매는 이못난女性의 胸이 녹두알처럼 조려들면서 확겁한 悲鳴을 치지안흘수 업섯습니다。

새댁女子의 悲鳴은 冠쓰고 창옷입은 이집의 主人公을 손쉽게 마루에까지 끌어낼수잇섯습니다。六旬도 넘엇슬듯한 栗谷의 後孫은 사랑마루에 버젓하게서서 먼저 개들을 물리친후에 차즌뜻을 물어봅니다。

나의대답을 들은 李氏로인은

『아니 대혼자서요? 꼭 혼자왓소?』

하고 눈을 둥그러케 뜨더니 나의말이 진정인줄 알자

『거 정 용-하군』

하는 칭찬한마디를 떨어트리고는 二十歲쯤 되여보이는 靑年한사람에게 내案內를 命令합니다。

書院을 구경하고 朱子와 그弟子들을뫼섯다는 祠堂을 보고나서 聽溪堂을 향하여갑니다。

몃百年前부터 이적은 동리의 守護神이 되여잇는듯한 큰銀杏나무에서는 아즉도 黃金色의 落葉이 바람에 나붓기는데 땅에 수북하게 싸힌 금방석우에서는 四五人의 兒童이 落葉을 흘뿌리며 작난합니다。

처음에는 仙童인가하야 그들을 부러운듯 바라보앗스나 가까이가서보니 그들은 역시 헐벗고 영긴 가난한 農村의 아들딸이엿습니다。

聽溪堂! 이집역시 아까 書院과 똑가티된 낡은 마루방이엿고 가끔 儒生들이 몰일때 깔고안는다는 草席만이 둘둘말녀잇슴에서 나는 虛無를 늣겻습니다。

그러나 宣祖九年十月 栗谷의 四十一歲때에 지엇다는 그의 書齋의 퇴락한 모양보다도 十倍나 나를 끄으는것은 聽溪堂이라는 그일홈의 脫俗한것 입니다。

漢詩募集

題 迎春 押 生

限十二月十五日

(薄謝進呈)

新民謠의再認識
―아울러日本民謠運動의昨今―

(1) 金思燁

朝鮮現代詩史를 말하는에는누구나다 一九〇九年雜誌少年에揭載된 崔南善氏의『海에게少年에게』라고 題目한新詩試作의 發表로부터 비롯하얏다고한다。그러면 그後今日에이르기까지 별서二十六年이란 그다지 짧지안은 歲月이흐르는 동안에 燦爛하엿다고는 못할망정 또한 헛되지안은 보람이 잇섯고 將來할詩壇에 큰期待를가저도 조흠즉한 몃몃의有爲의詩人을나핫다 그러나 筆者로하여곰 痛歎을禁치못한다는것보담 도리혀 異常한늣김까지 들게하는 重大한事實이 잇스니 그것은 곳今日까지우리詩壇에는 한사람의 자랑할民謠詩人을 가지지못하엿고 民謠에關聯된何等의 運動도업섯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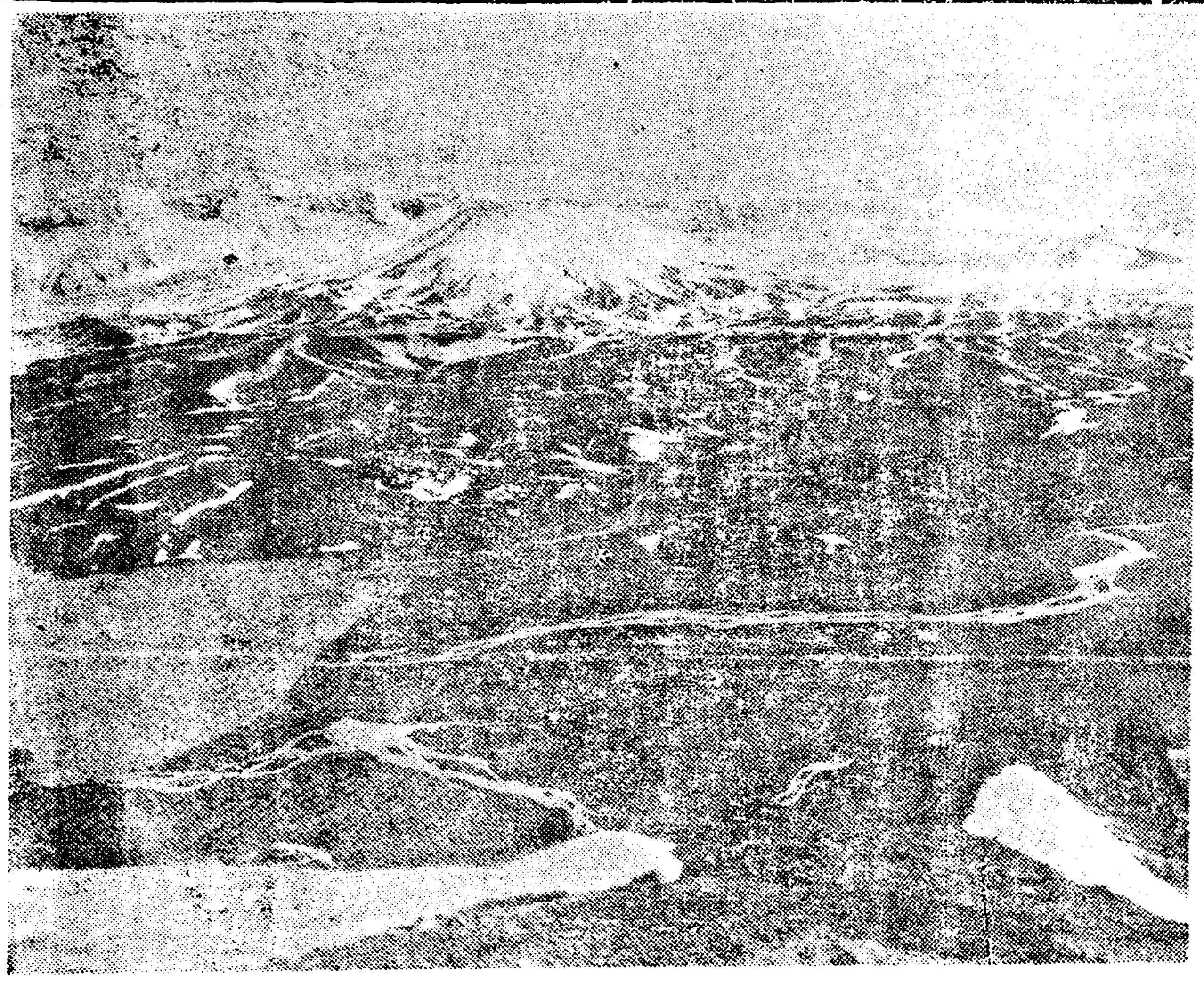
朝鮮의 詩壇은 日本內地詩壇의 動向에 늘多少의 影響을밧어왓슬뿐아니라 따外國의 새로운 理論及 方法도 大槪 그곳詩壇을거처서 朝鮮에 輸入됨이 만엇섯슴은 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다다이즘』이며『쉬르레아리즘』이 그곳에서 隆盛해지자 이곳에서도 그것을본밧든이가 나왓섯고 純粹詩며『폴마리즘』이 또한 그러하엿스니 오래지안어 新浪漫主義가 朝鮮에서도 問題삼을한두사람쯤은 반다시나오고야 말것이다。

이가치 日本의 詩壇에關心을 갓고잇는 朝鮮의詩人은 엇지하야 그곳詩壇에 잇서서가장일즉이發生되야 赫赫한 發進을하며 文化面上에 深異할이만큼 民謠運動의 存在에는 無關心하엿고 또한 그것은運動을 朝鮮에서도 企圖하여보라는 意欲을 가진이가 업섯는가는 도모지모를일이다 模倣만이 無上의것은안이나 模倣또한度外視할수업는 重要한文化運動의原動力의 하나가안인가 以下筆者는 이點을드려 民謠의價値를말하며 한거럼나아가朝鮮詩壇에잇서서도하로밥비 이런運動이發生되기를 希望하며 곳호로 日本民謠運動 昨今의動向에 對한鳥瞰을 試驗할가한다。

지금問題삼고저한는 新民謠라는것은 古來로傳承되여오든 民謠에對하야 새로히創作된 民謠를말함이나 大體로民謠는 在來의것이든 새로히 創作된것이든 다마詩의尺度만 가지고 자질할수업는 여러가지 特質이잇다。이것을 闡明하기前에 머저 一言하여야할것은 相當히 敎養이잇는사람가운데서 民謠를『너무通俗的이고 低級하다』고하야 여업시 排斥하는 어리석은짓을 敢行한다는것이다。

이것은 皮相的觀察로因한 認識不足을 스스로 自白하는外에 아모것도 안이니 이一見平民的한民謠가 도리혀 一般民衆의品位의好尙을指示하고 民心의性情方面의趨向에큰 任務를하고 잇다는것을考慮에 넛치안은까닭이다。

民謠에對한 眞正한 理解는도리어 古代에잇서서는 아모런疑評가업시 把握되엿든듯한다。그것은 漢書의 藝文志其他를 보면『采詩의 官이잇서 各地의 詩를採集하야 이것을 太師에게 獻하면 太師(周時代의 三公의 한사람으로써 音樂을 掌握하는官)는 이것을 天子에게奏聞한』이라던지 禮記에『天子는 五年에 一次式 巡守하며 太師에게 詩를述케하야써 民風을살핀다』라고 記錄되여잇다。이『民風』이란것이 두말할것업시 그當時의『民謠』인데 이것이 孔子의손에 删正될때 그노래가 불리워진區域에따라 分類하야 編輯된 詩經이다。이 詩經속에 담기여진 三百五篇을 가지고 其後의 爲政者나 學者가 三經의 하나로 尊崇하야 政治、思想乃至 古代風俗의 研究에 업지못할 貴重한 材料로 使用한것은 그만두고라도 文學的으로보아서 過去中國의 古代文學作品中에 그어느것도 이에 比肩할수업는 優越性을 內包하고잇다。孔子가 이것을 評하되『詩三百篇을 一言으로 蔽之하면 思無邪라』고 한데 이르러는 萬代에 不變한 卓見이다。民謠의 眞價를 이以上的確히 言明한말은업다고보아도 無妨하다



火山도치는極北―

북·레뷰 바라든 지용詩集

……(四)…… 李歇河

氏는 꿋으로 또 眞實한信仰의 詩人이다。

基督敎的 信仰의 歷史는 우리에게 잇서길지 못하다。그러나 이 짧은동안을 두고 본다할지라도 基督敎的信仰이 오날가티 우리마음 가운데 뿌리를 박기가 困難한때는 업스리라고 생각한다。이것은 엇더케말하면 오날 우리 基督敎界에이러난 復興運動自體가 무어보다도 如實히 證明한다고 할수잇겟다。그러고 敎會에 다니지아니하는 一般사람 더욱이 젊은사람으로 말하면 다만 基督敎뿐아니라 一般宗敎에 對하야 全혀 無關心하거나 그러치아니하면 처음부터 宗敎를 拒否하는態度를 取하는것이 오날의 現狀이다。따라 우리는 밋음이 論議되고 밋음을 表白하는 사람을 볼때 우리는 同情을 가지고 理解하고 共感하기를 힘쓰기前에 먼저 懷疑를 가지고『아이로니컬』한 態度를 가지고 對하는때가만타。

그러므로 이러한때에 잇서氏와 가티 가장 銳敏하고 聰明한 知識人의 하나이 굿세게 밋음의 길을것고 잇다는것은 그 事實自體가 이미 注目을 이끌만한 일이라하겟다。그러고 또한거름 더나아가 氏가 엇더케 『조약돌』『歸路』또는『時計를죽임』에 잇서서와 가튼 외롭고기뿜업는 憂愁의 世界를 지나 『다른한울』『또하나 다른太陽』에 잇서서와 가튼 平和롭고 기쁨과 希望이넘치는 境地에 到達할수 잇서느냐 하는것은 오날의 朝鮮에 잇서 處身할바를 아지못하는 우리 젊은사람들의 반다시 한번 깁히 생각하여 볼만한 課題라고 생각한다。勿論 여긔잇서서도 時代錯誤라든가 또는 現實逃避라든가하는 말로 氏의態度를 或은 拒否하고 或은 排擊하는것은 批判하는 사람의 自由다。『悔恨도 또한 거룩한 恩惠』(一三二頁)로 느끼는 사람의 밋음의 眞摯할을 우리는 疑心할수 업스며 또 다음과 가티 노래한사람의 心境이 깁고 참되고 平和로운것을 그리지 아니할수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그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안엇스나 그의 안에서 나의 呼吸이 절로 달도다。

물과 聖神으로 다시 나은 이후

나의 날은 날로 새로운 太陽이로세!

못사람과 소란한 世代에서

그가 다만 내게 하신 일을 진히리라!

미리 가지지 안엇던 세상이어니 이제 새삼 기다리지 안으련다。

靈魂은 불과 사랑으로! 肉身은 한낫괴로움。

보이는 한울은 나의 무덤을 덥플뿐。

그의 옷자락이 나의 五官에 사모치지안엇스나 그의 그늘로 나의 다른 한울을 삼으리라。(一四二頁)

이러한때의 氏에게는 藝術도 그다지 밧갑지 아니할것이다。그러나 同時에 詩人으로서의 自覺을 일치아니하고 쓴 아름다운 詩라 하겟다。

×

筆者는 以上 氏의 詩集에 나가 보면 누구나 다 한가지로 늣길바를 代身하여 말하엿다。筆者가 氏의 詩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制限을 말하지 아니한데 엇던 讀者는 筆者가 여기 『조오지』博士의 이르는바『人生劇』가운데도 가장 嘲笑할만한 笑劇의 하나를 演出하엿다고 할는지도 모르겟다。그러나 이제 붓을 노코 생각하매 筆者는 筆者가 魯鈍하야 氏의 주는 것붓을 充分히 말하지 못하고 또 筆者의 말이 너그럽지 못하야 氏의 詩에 禮儀를 다할만한 表現을 하지못한것을 도로혀 두려워한다。

그러고 또 實狀 氏의 詩集을 처음펴든 사람으로서 누가 몬저 感歎하지아니하며 讚辭를 밧치지 아니하랴。氏의 아름다운 感覺과 感想 또 가리 아름다운 氏의 말과 마음 그러고 한편에『風浪夢』『海峽』『歸路』를 쓸수잇고 또한편에『해바라기씨』『산넘어저쪽』가튼 童謠 또는『산엣새시들녀사내』가튼 民謠를 쓸수잇고 그러고 또한편에『다른한울』『또하나다른太陽』가튼 宗敎詩를 쓸수잇는 氏의 力量! 우리는 이제 여기 처음 다만 우리文壇 有史以來의 한자랑거리가 될뿐아니라 온世界文壇을 向하야『우리도 마츰내 詩人을 가젓노라』하고 브르지즐수 잇슬만한 詩人을 갓게되고 또 여기 처음 우리는 우리 朝鮮말의 無限한 可能性을 具體的으로 알게되엿다。엇지 우리文壇을 爲하야 기쁜일이 아니며 또 우리가 참으로 感謝하여야 할 爛爛한 功績이라 아니할수잇스랴。

氏여! 願컨대 自重加餐 멀지아니한 將來에 또 이러한 아름다운 詩集을 우리에게 선물하라。그러고 우리의 이러한期待가 또 우리文壇의 힘이되고 빗이되것을 부대 잇지말라

끗으로 우리는 또 우리讀者를 爲하야 이詩集을 꾸며준 朴龍喆氏에게 感謝아니할수업다。氏가 이詩集을 編纂하고 또私財를 던저 出版한것이 오로지 詩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하는 詩를 널리 남호고저하는 氏의 가륵한 뜻에서 나왓다는것을 우리는 이저서는 아니된다。(完)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新人을招請한다!!

應募期限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小說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에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십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一篇三十圓

◇戲曲 一幕以上三幕以內의것으로 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一篇三十圓

◇詩 長短은 隨意로하시고 每人이 數篇式 應募해도 無妨합니다 賞金=首席一篇 十圓 次席一篇 五圓

◇時調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民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童話 슬픈이야기보다 깃부고 기운날이야기를 쓰십시요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賞金=入選若干篇에 對하야 各篇에十圓式

◇童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드림

注意 ●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하고原稿를 一切返還치안습니다 ●보내실때는『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쓰서야됩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 白

新刊紹介

▲大陸公論 第十號 元山府旭町二丁目一六 大陸公論社發行 定價十五錢

▲幼年朝報 十一月號 平壤府西城里一〇ノ二ノ四九 一千동무社發行 振替京城一八七一〇番 定價十五錢

▲新生命 第八號 下關市本町十二町目一四四 新生命社發行 振替下關九四八三番 定價十錢

▲朝光 十二月號 (主要內容) 創作=短篇 顚末、새벽바다外 數篇 時事評論=世界再分割論批判 新獨立國比律賓大觀 細萌氏이두다리는군물、門、朝鮮劇界二十五年 키스의詩文學、朝鮮銀幕界스타-는누구누구냐 에디오피아野談 其他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三十錢 送料本社負擔

▲鮮滿こども 十一月號 京城府吉野町一丁目一二七 鮮滿こども新報社發行 定價三十錢

▲上海から巴蜀へ 神田正雄著 第一篇 三十年目に巴蜀への旅 第二篇 古きを溫ねて 第三篇 入蜀案內等 東京市淀橋下落合三の一三六七 海外社發行 振替東京七五八八七番 定價一圓五〇錢

▲義如此 十一、二合月號 京城府中學洞一 朝鮮少年軍總本部 의여차編輯部發行 定價十錢送料二錢

▲靑年 十二月號 京城府鐘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發行 振替京城一〇三八番 定價十錢

▲時兆 十二月號 京城東大門外淸凉里 時兆社發行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黑風 【196】

韓龍雲 作 金熊超 畵

복수(復讐) 6

콜난은 왕한의 태도를 보고서 하도 어이가 업섯다

콜난은 당초에 선물갑을 고를때에도 어느것이 적당할까를 생각하기에 고심하얏다 평소 왕한의 성격과 취미를 참작하야서、또는 속되지 아니하고 실례되지 아니할것으로 고른것이엇다 그중의 보석시계 화병 인형 가튼것은 미국에서도 상당한 귀중품으로 가격도 적지아니하얏다 그것은 유명한 교제가들의 국제적 선사품이 되기에도 조금도 손색이 업슬만한것이엇다 그러면 그 선사품은 더웁고 간절한정과 진실한 성의와 만흔 돈으로 된것이엇다

콜난은 그것을 가지고 올때에 이것을 가지고가면 왕한이가 얼마나 깃버하리라는것을 상상하얏든것이다 그중에도 소소한것들을 왕한의압헤 내어노면서 어린양삼어 말을하면 왕한이가 얼마나웃고 귀여워 하리라는것을 마음으로『스케취』(寫生)하얏든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행여나 왕한이가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얏슬가 하는 염려를 가지고잇는 콜난은 배에서 왕한을 바라볼때부터 왕한의 어느 구석에서든지 그러한 흔적을 차저보랴고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얏고 왕한을 맛나서 가치 여관으로 올때에는 왕한의 태도와 눈치를 보기에 자못 칠분의 마음을 허비 하얏든것이다 그러한대 정말 이것을보면 얼마나 깃버 하리라는것을 상상하면서 내어놋는 선사품을 보는 왕한의 표정과어훈이 그러한것을 보든 찰나、천하의 고통은 모다 콜난에게 모이는듯하엿다 콜난의 기대하든 희망은 어름처럼 어려붓고 선사품들 만지든 손은 사시나무처럼 흔들렷다 그들의 침묵을계속하는 순간、실로 『무정세월』의 한동강이엇다

『서왕한씨 전화 왓습니다』

하는 여관뽀이의 소리가 창박게서 낫다

『어듸서?』

하는 왕한은 창을열고 내다본다

『광동에서 왓는데 급히 바드시랍니다』

『그래? 곳 나가지』

하는 왕한은 이러나면서

『전화가 왓다니까 잠간 실례하겟습니다』

하고 콜난에게 말한다

『예』

하는 콜난의 대답은 힘이업시 입설끗에서 흐르는 소리엇다 왕한이가 나간뒤에 콜난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렷다 콜난은 왕한에게 전화한것이 반듯이 왕한의 애인이리라고 추칙하얏다

콜난은 뽀이를 불러서

『당신이 아까 광동서 서선생님께 온 전화를 바덧소』

하고 무럿다

『예』

『누군지는 모르지오 성명은무러보지 아니하얏스니 까요』

『녀자입데까 남자입데까』

『남자의 목소린데 말소리가아주 우악살스럽든데요』

『그럼 그만두시오 나는 나의 아는녀자가 전화를 햇나하고 무러본것입니다』

하는 콜난은 자기가 처녀다운 상도를 벗어나서 당연히못지아니할말을 무른것을 구차스럽게 변명하얏다 뽀이가 나가면서 저의 동무를 보고 눈을 끔적하면서 무슨말을 속삭이는것을 볼때에 콜난은 다시금부끄러움을 깨다랏다 그러나 콜난은뜨듯이 전화한것이 왕한의 애인이라고 추칙하야서 급격한 자극을 바더든것이 남자의 목소리라는 뽀이의말에 자기가 너무 신경과민으로 지나치게 생각한것을 뉘우치는 동시에 불쾌하든 심장이 다소 완화되얏다 그러면 아까 왕한의 언동을 추칙한것도 너무 과도하지 아니하얏는가를 스스로 의심하얏다 그러한 의심이 날수록 그와비례로 왕한에게대한 감정은 완화되는것이엇다

왕한은 밧부게 츠려오터니 안질새이도 업시

『이거 미안하게 되얏습니다 급한일이 잇서서 곳 광동으로 가야 되겟는데 콜난씨가 가러가실수가 잇슬까요?』

하고 평화스럽고도 긴장한 태도로 말한다

당장에 숨이꼿칠듯한괴로움 천식

완고한기침에 놀라운新創見劑 「スペロイン」(스페로인)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注射以上의頓服藥

『스페로인』의偉大한作用

◇『스페로인』을 頓服하면 猛烈한藥效作用을나타내어 喘息의病素를 巧妙히小便으로驅出하는 强心性의貴重한 化學藥品입니다。

◇決코一時的속임藥은아니오니 아모리괴로운천식의 發作도『스페로인』의頓服으로아조쉽게나어니즌듯이됩니다。

◇완고한기침이 끄치고담이 아니나와서咽喉가爽快하되며呼吸이잘되며 身體에 爽快한溫暖感을주어서 氣分이非常히조하지며心臟이 편하고安眠이잘됩니다

◇이와가티 有效하나모루히네나 아드레나린其他의毒劇藥의問題가안임으로 아모리連續하야 服用하야도 人體에絶對로害가업서서 念慮될것이업습니다。

◇繼續服用하야 두면喘息의發作이적어지어드대여 喘息이나지안토록튼튼한體質이됩니다。

『스페로인』實驗者는效力의偉大함에놀라서『참으로注射以上이라』고울며깃버하십니다。어떠한천식에든지效力이참으로 的確합니다。무엇을服用하든지無效하야、천식은죽기까지낫지안는다고悲觀하고잇든사람이나 注射로自己의生命을自己가短縮시키든사람에게一大福音입니다。迷惑치마시고只今곳實驗하십시요。詳細한說明書는藥에添附

適用症 『천식』 氣管支加答兒、氣管支擴張、완고한기침、利尿百日咳、感冒、神經痛、偏頭痛其他기침의諸症

藥價 『스페로인』藥價六日分一圓、十五日分二圓、二十五日分三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有名藥店에有함) 萬一無品時는直接으로 送費前金은 無料代金引換五十錢加

有名藥店에有함

スペロイン發賣元 東亞藥園 大阪市天王寺東平野町三(電車上六) 電話南四〇一五番・振替大阪七五一四番

特約店 京城南大門通新井藥房 同本町四丁目木村藥房 釜山辨天町藤田藥房 釜山辨天町大黑南海堂 平壤大和町森田藥店 大邱本町町田藥店

갑장 製造家를求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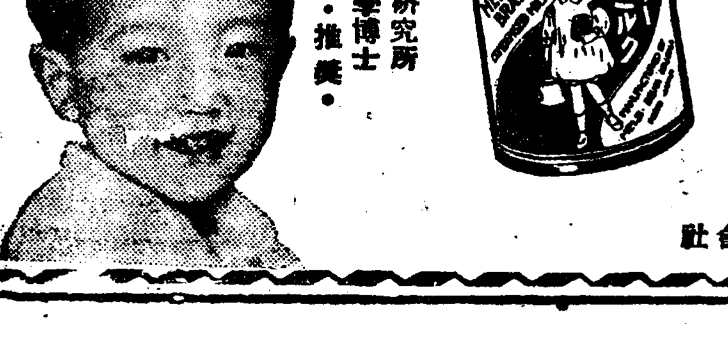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鄕을莫論하고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一手로引受、編絲는供給하여드림으로써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取引할수잇슴、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朝日掌甲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五電停前 電話本局(2)二七五二番 本店・大阪・支店・東京

母乳代用品으로써代表的優良品!

明治メリーミルク 메리-밀크



乳兒의哺育에 兒童의保健에 姙産婦의榮養에

理化學研究所 鈴木農學博士 ・推獎・

明治製菓株式會社

朝の一つけ荒知らず

美容工作の必需品!

レートクレーム

레토크렘

夜の一つけいつも若肌

愛用感謝三百萬名에게
總當籤大懸賞募集中!

CREME DE LAIT

レートクレームの生々した若肌にレート白粉の

鮮かな化粧美!この二重奏こそ表情化粧の極致

レート 水粉 白粉

레토

レート化粧料本舖・東京・平尾贊平商店

爲替管理法에 依한 滿洲國取締內容 ②……十日부터實施

▲金、銀의輸出禁止=財政部大臣의許可를받지안트면 金地金、砂金、金의合會金을 主材料로한物及 銀貨(現大洋、現小洋)銀地金을輸出지못한다(但 日本補助銀貨는 例外)

許可를 밧지안코 此等金輸出코저하는者 또는 輸出의計畫을한者는 그物品을 沒收하는外에 (二)에述한 處罰을受함(命令第八條及法第五條第一項)

▲金銀의 輸送制限=金地金、砂金及 金貨(現大洋、現小洋)銀地金을 鐵道、郵便、航空便、船便等의 輸送機關에 託하야 輸送코저하는 者는 財政部大臣의 許可를 바더야 한다。(但 日本補助銀貨는 例外)(命令第九條)

右의 輸送許可를 밧지안코한者는 그物品을 沒收하는外에 (二)에 述한 處罰을 受함(法第五條 第一項)

▲外貨에 依한 預金、貸借의禁止=國內에서 外國通貨(天津弗、上海弗、現大洋、米弗、磅等에 依하야 預金契約을 하고 貸借契約을 하며 또는 社債를 發行코저하는 者는 財政部大臣의 許可를 바더야한다(但 金圓鈔票는例外)(命令第十條)

右에 違反한者는(二)에述한處罰을 受함(法第五條第一項)

▲外貨證券의 賣買禁止=國內에서 外貨表示의證券(公債、社債、株式、公價、社債의 利札)을 賣買코저하는者는 財政部大臣의 許可를 바더야 한다(但金圓 또는鈔票의證券은 例外)(命令第十一條)右에 違反한者는 그證券을 沒收하는外에 (二)에 述한 處罰을受함(法第五條第一項)

▲許可申請手續=前記外國通貨外國爲替의 買入과 外國送金에對한制限 外國通貨의輸入禁止 金銀의 輸出禁止 金銀의輸送制限外貨에 依한預金貸借의禁止와 外貨證券의 賣買禁止等의許可를 밧고저하는者는 施行手續第一條乃至 第十一條의規定에 따라서 所定事項을記載한 許可申請書二通을 作成하야 財政部大臣에 提出해야한다 (命令第二十條及施行手續第一條乃至第十一條)

▲外貨社債發行及 十萬圓以上의外貨借入金의屆出=(가) 滿洲國法人이會社는 外貨社債(日貨社債를包含)를 發行한때는 施行手續 第十二條에 依하야 直時 財政部大臣에 屆出해야할것이며 또 何人을 不問코 外貨十萬圓(圓幣에 換算하야 十萬圓)以上의 借入金을 한때는 施行手續 第十二條에依하야 直時 屆出해야한다 그러고 右의外貨라는것은 모든外貨를 包含한것으로 金圓鈔票의 借入金을한때도 屆出함을要함(以上命令第十五條)

(나) 右의屆出을 怠慢히한者는 六個月以下의 有期徒刑 또는 五千圓以下의 罰金에處함(法、第五條第三項)

▲錢鈔業者、爲替業者의屆出義務及報告義務

(가) 屆出義務=本令施行時 錢鈔爲替의賣買를業으로 經營하고잇는、錢舖、錢莊、銀行等은 本令施行後 一個月以內에 施行手續 第十三條에依하야 그店舖를 財政部大臣에 屆出해야한다 (命令 第十六條 第一項及 施行手續 第十三條)그러고 이뒤 그業務를 廢止코저하는때、또는 그中의 어느店舖를 廢코저 하는때나 또는 그店舖의 錢鈔爲替業務를 廢止코저하는 때에는 施行手續第十三條에 依하야 미리財政部大臣에 屆出지안으면 안된다(命令第十六條 條三項及施行手續第十三條)

(나) 報告義務=錢鈔爲替의賣買를 業으로하는 錢舖錢莊銀行等은 每日의錢鈔 爲替의賣買高 買持또는 賣持高의 施行手續附屬書式第一號(甲)(乙)의 形式에依하야 三日以內로 또 每月의 錢鈔爲替의 賣買의 明細를 施行手續附屬書式第二號(甲)(乙)(丙)(丁)의 書式에依하야翌月十五日까지財政部大臣에게 報告해야한다(命令第十七條及施行手續附屬書式第一號、第二號)

(다)右(가)(나)의屆出及 報告를怠慢히한者又는 이에 虛僞의記載를한者는 六個月以下의有期徒刑 又는五千圓以下의罰金에處함(法第五條第三項)

—終—

檢查不合格品 朝鮮經由輸出
日本內地에서統制를紊亂한다고 根本方針樹立提唱

【東京電話電通】最近輸出統制에伴하야 日本內地의 統制를免하랴고 日本內地의 輸出檢查不合格品을 朝鮮에移出하고 또는日本內地에서 原料製品을 朝鮮에移送한뒤 朝鮮에서 加工完成品으로하여가지고 朝鮮에서 輸出하는等 統制破壞를 目的으로한朝鮮經由의 輸出이 더욱增加하는傾向이잇서 그結果 日本內地의 輸出商工業者에게 만흔影響을주고 이에對한政府의 對策이 注目된다 即朝鮮經由에 依하야 日本內地의 輸出檢查數量協定等을 免하는것으로는 現在電球、琺瑯鐵器等及 朝鮮에잇서 加工輸出하는것은加工綿布이다 日本內地商工業者는 그輸出取締를 商工省에 要望하엿든바 商工省은 이것을拓務省에 移牒하야兩省間 對策을 協議中인데 그中 電球에對하야는 지난一月日本內地側에서 商工省 事務官、工業、輸出兩組合代表者와 朝鮮側에서는總督府事務官、輸出同業組合代表者가 參集하야 協議한뒤 朝鮮에서도總督府令을 公布하야 檢查하고 輸出數量을 協議하야 日本內地의 電球輸出協定과 步調를 가티하기로되고 十月부터實施하엿다 琺瑯鐵器에對하야도 商工、拓務兩省間에 諒解가 成立하야 不遠 總督府令을 公布하여가지고 朝鮮에도 輸出檢查를 하기로되엿다 그러나 이런傾向은 압흐로 各商品에도 擴大될모양임으로 이것을 問題가 表面的으로된 境遇에만 解決한다는 姑息的 方針을 政府가 取하는 때까지는 現實的으로 輸出統制를 紊亂케하야 海外市場의 日本商品聲價를 失墜케할念慮가잇슴으로 民間當業者도 이런日本內地、朝鮮間 經濟的摩擦의 解決에 政府가 根本方針을 樹立하기를 熱望하는터이라고한다

東京物價 都賣少落 十月中指數

【日銀調查】今年八月로부터 十一月까지 三個月間 七分七厘에 顯著히 昂騰한 東京都賣物價指數는 主로 米、小麥、金屬類等의 低落에依하야 十一月一九三、六으로 이것을前月에 比較하면 二厘의 少落을 示하엿다 그調查品目五十六品中 騰貨廿二品 低落十七品이엇다고

米棉最終豫想

【紐育九日發商通】農務省發表에依하면 十二月一日調查의 新棉最終豫想은 다음과갓다

收穫豫想	一〇、七二四千俵
廢棄段別比例(七月一日以來)	一分九厘
收穫段別	二七、三三一英町

그러고 國勢局은 十二月一日調查의 新綿所在高를 九百卅六萬二千俵로 發表하엿다

米穀低利資金 年內受入希望

米穀應急低資配定附議의 預金部運用委員會는 總督府로부터도與村事務官이 渡東하야 中央部와折衝하고 十一日 準備協議會를行한後 中旬中에 朝鮮內米穀融通을 決定할터인데 今年의特殊的 金融事情으로 朝鮮內에서는早急入手를 希望하고 總督府理財課에서도 歲末金融의繁忙을目睫에두고 될수잇는대로 便法에依하야 年內取入의手段을 講究할意向인데 運用委員會의開催如何로는 年內取入不能이될으로朝鮮으로서는 早急處理를切望하고잇다한다

經濟界消息

人三千六百六十一件 朝鮮人二萬六百五十八件 計二萬四千三十九件인데 十一月末現在의總契約件數는 八十萬件으로 保險金額一億四千八百六十七萬圓이라고

〇京仁三品合同發起人會=京仁三品合同은 九日 京城에서 第一回發起人會를 열고 新設會社京仁三品會社의 定款其他를協議하엿스나 一致되지못하야今後數次會合할터인데 創立總會를 열기까지는 아즉도 多少의時日이 걸닐모양이다 合同의形式은 京仁三品을 新設하고 이곳에 三業者를 吸收合倂하는것이라고

朝鮮石油 貯油탕크 各地에建設

朝鮮石油에서는 明春解氷을 기다려서 各地有力消費地에 貯油탕크를 設置키로決定하고 不遠中山總務가 各現地를 視察한뒤設置場所를 決定키로 되엿다고한다

▲簡保契約 朝鮮簡易保險의十一月中新規契約은 日本內地

集散地精米業 休業의狀態
正租強制檢查結果

正租의 強制檢查實施와 共同販賣에依하야 正租價格의 騰貴가顯著하고 그結果 精米業은 採算의 惡化로 全然收支가 안맛게되고 正租市勢의高價가 持續되야 精米業의經營은 어렵게되엇다 即正租產地市勢의 八錢唱은 精米一石原料로三百五十斤을要하고 이原料代와 運賃、諸費用만으로는 精米市勢에 匹敵한바 結局高能率의 精米業은 最低採算을 保持함에不過하다 그러서 全朝鮮各地에서 精米業의操業中止乃至 縮少가 續出하야 倒閉滿、長項等은 이미 問題가 表面化하엿고 그外에 主要集散地에도 뒤를 잇대여 이런傾向이 表面化할形勢임에 잇는터이라고한다

市中銀價低落

京城市中銀價는 十日 賣一匁二十六錢 買二十四錢으로 모다 低落되엇다。

上旬對外貿易 入超千十萬九千圓

【東京電話電通】大藏省發表에依하면 十二月上旬對外貿易槪算調查는 다음과갓다

(單位千圓)

輸出	六一、八四二
輸入	七一、九五一
合計	一三三、七九三
入超	一〇、一〇九
一月後出超累計	四、一二二

下半期增配 會社激增
商工省所管狀況

【東京電話聯合】今年下半期事業會社業績은東京商工會議所調查에依한軍需工業의殷振、電力需要增加에伴하는 電力界好轉、伊에戰爭開始로昂騰한株式市場을 비롯하야生絲米價高로因한 農村方面의好況으로 砂糖、肥料의 消費가增加하야 該關係工業의 好績으로다음과가티 增配會社의續出을보게되엇다 一面 躍進에躍進을繼續한 人絹業에잇서는 增產計畫의續出과 非加盟側의 進出로生產過剩을 招致하고 再次不振의情勢를示한다 即이미決定 或은 內定된 今期主要各社의 株主配當率을 들면 다음과갓다

▲增配(記念配當包含)

	今期	前期
東邦電力	八分	七分
日本電力	七分	六分
東京電燈	七分	六分
宇治電	五分	無配
昭和電力	三分五厘	無配
合同電氣	六分	五分
京阪電鐵	三分	無配
臺灣製糖	一割二分	一割
明治製糖	一割二分	一割
帝國製糖	一割	八分
日本郵船	七分	五分
日本石油	五分六厘	四分
東京株取	七分六厘	六分四厘
大阪株取	七分八厘	七分五厘
橫濱取引	一割一分	六分八厘
名古屋株取	九分六厘	八分
東京米商	五分	四分五厘
神戶取引	八分八厘	八分五厘
名古屋取引	六分	五分四厘
京都取引	一割一分厘	一割一分
品川白煉	八分	六分
電氣化學	九分	八分
昭和肥料	一割三分	一割
明治製菓	一割	八分
玉川電鐵	七分	六分
川崎車輛	九分	七分
日本車輛	一割八分	一割
松竹キネマ	七分	六分
▲減配		
日本石油	一割	一割二分
東京人絹	八割	一割

商況(十日)

株式 反落後에 採合

前場反落 昨後場 鐘新先驅로 急騰되엿뒤를이어 今前場은昨後引保償昇付이잇스나 高價는反面弱氣도 말하되

▲据置

日魯漁業	一割	一割二分
日本產業	一割	一割二分
スマートラ興業	六分	八分
쌕네오고무	三分	五分

鬼怒電五分、京濱電力八分、上毛電力五分五厘、北海水電八分、木曾發電八分、南海鐵道一割、大阪電軌八分、阪神電鐵九分、阪神急行一割、東洋紡一割八分、裕豐紡八分、明正紡一割、富士紡一割、錦華紡一割、同興紡七分、強、滿洲紡一割二分、日東紡一割、大日本紡一割二分、天滿織物八分、日本棉花四分、東洋レーヨン一割五分、旭ベンベルグ一割、帝國人絹一割八分、倉敷絹織二割、大日本製糖一割、鹽水港三分、臺東製糖六分、沖繩製糖六分、通二分、優先六分、昭和製糖二分、樺太汽船三分、九州炭礦一割二分、日本礦業一割四分、國際通運七分、東京合同運送五分、大阪乘合一割二分、日本セメント七分、日本電工一割二分、ラサ工業一割、日本窒素肥料八分、日本製鐵六分、芝浦製作一割、日立製作一割二分、神榮生絲五分、三井信託七分、共同信託五分、川崎信託五分、織田信託六分、開西信託六分、森永製菓六分、大阪商事二割、東株代行一割一分、大株代行一割二分大阪株取二割五分、名古屋陶器一割三品一割、堂島米取四分、成島同粉販賣六分

最後의五分間
雙方氣迷深甚

十二月이 열흠을지나도 高價保合만하고 시원치안호니가 年末高를밋던 買方에 焦燥氣分이떠돌기시작함을 否認할수 업는데 어떠구로도는 如左히말한다。

年末인만큼 警戒가만코 取組가만흔것을 걱정하야 시원스럽게 올느지못하는 모양이나이대로 꺽구러질市勢로는 보이지안는다。最後五分間이라말도잇스니 年末高가 업스리라고 失望되는 그때에가서 二三日間에 大爆發을 演할지도모른다

하야 지금의 警戒를가르처 市勢의 壽命이 긴것이라보는 一面弱氣도말하되

期米 搖之不動 膠着

前場膠着 昨後場 阪地三十圓八十八錢止와 共히 二十八圓八十錢에 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 八十錢인 昨止同樣의 報를 捕하고二十八圓八十二錢인 二丁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六節八十三錢으로 下押함을따아 七十九錢까지小押하더니 阪地八十錢으로 小弛하엿다가 八十二、三錢으로高含함을伴하야 三節六節은 賣買不成으로 七十九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釘付 後場은 二十八圓七十六錢에 同價始場後 五節까지 釘付이고七十七錢에止場하다

買上與否注目 兩方共히警戒

去五日 格差委員會에서 政府米의買上을 決定하지안코 躊躇하는 狀態임으로 一般은 此買上의 與否를 注目中인데 果然今年內에 買上을 實施하지안코明年度로 延期하게될지 此가疑問이다 萬一 年內에 買上을 實

實物로 實押되어 東新大新反落으로 結局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一圓五十錢低인 百七十三圓八十錢、大新一圓十錢低인 百二圓五十錢、日產同價인 七十二圓七十錢、朝新十錢低인 三十一圓五十錢에 各大引되고 鐘新百六十二圓五十錢으로 二圓丁에 高價保持이엇다。

後場採合 後場은 東新百七十四圓十錢 日產七十二圓九十錢朝新三十一圓五十錢에 各寄付後大阪 鐘新百六十圓割의 反落과相俟하야 諸株採合裡大引

위伸惱反落?

北中問題는 新政權樹立으로 日本에對단히 有利케되엇스며 多年의 懸案이던 大株長期合併은認可키로되엇스니 北中自治한가지만가지고도 東新爆發의 動因은 充分하겟슴에 不拘코 昨後場 鐘新爆騰에 伴하야 東新이東京서 百七十六圓五十錢의 高價가 잇슬뿐이고 今前場은北平學生聯合會서 北中自治反對大示威로 形勢가 險惡하고米棉低로 因한 綿絲低、買易入超等으로戾賣物을 招하야 東新、大新은反落되엇스며 鐘新만은 山一의買思惑으로 依然百六十二圓의高價保持이고 日產도 七十二圓臺를堅持할뿐 無活氣한 場面이엇다。

實物株前場取引

▲大同電力新三〇 ▲大同電力舊三〇 ▲日滿아르미三〇 ▲東滿펄프三〇 ▲北鮮製紙二〇 ▲鹽水港新二〇 (取引高二〇枚)

北濱情報=【大阪電話】

新鐘은 山一證券의 傍觀과 利喰으로 買方主力의 傍觀과 利喰으로下押하야 鐘紡은 新鐘과의 朝關係와 高率配當狙의 買物轉로奔騰

이미 모든好材料는 모다 市勢에 織入되어 東新이 百七十八圓丁에까지 올느지 안켓는냐? 上海에 더잇는것이라면 昨日 北中政權樹立說도고 當然 二百圓소리가 나왓서야 할것인데 伸惱反落인듯上條地가 업는 證左라하야 東新을 買치못할것이라하며 北中自治反對運動、綿絲會議前途憂慮、政治季節關係等으로 爆氣材料가 一、二에 不止하니 當然反落이 잇스리라는 弱氣觀도잇서 年內立會 不過一週에 強弱兩方의 氣迷深甚이엇다。

貿易은大入超

貿易好轉을 謳歌하엿스나 上旬貿易은 入超一千萬圓으로 一月以降累計에잇서 出超가 겨우四百十二萬圓에 不過함으로 中、下旬도 當然入超가 豫想되는만큼 今年의 買易은 結局에잇서도入超가되고 말것이라하야 이것이今前場引低의 一因된모양이다。

今日財界(十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八七	二低
大阪期米 先限	三〇八二	六低
⊖三等米 一石	二六三〇	五高
正租(仁川)(四十斤)	三〇三	不變
一斤 價 上	八錢四厘	
一斤 價 下	八錢二厘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一圓七十錢	十一圓六十錢
銀	二十六錢二厘	二十四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三一五	一〇低
東新	一七三八〇	一四〇低
日產	七二五〇	不變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二〇四〇〇	一五〇低
大阪棉花	六四五〇	六〇低
大阪人絹	一四六〇	五〇低
大阪砂糖	二三六八	三低
고무現	四四錢五	先四四錢五

行하지 안는때는 一段低落을告할지도 未知인바賣로政府의方針如何를 一考하여보면 買上은大體生產者를爲함이오 拂下는消費者를爲함임으로 現下米價가 出盛期임에도 不拘하고 依然高價를 維持하는關係로 徐徐히買上을 實施하려고할것이다 그럼으로 此年內에 政府의 態度如何를보아서 一段瓦落을 告할것도갓다 더구나 來客側의買偏倚으로 地場은於焉間賣買成의 傾向이多하며 又는 아무리賣惜하는것도갓다 實로此에서 政府米買上期待의失望的賣物이 現出하야一段反落을豫想한다할지라도 結局은 二年續飢凶作의 行動은하고야말것임으로 前途高價는 否認하지못할것이다 果然 農家가賣惜方針을 固執하고 또平均賣의方策으로나가는때는 低落當餘地가업서 保勢를 持續하다가 明年度減收期에 入하면서 本格的凶作의 市勢가展開되어 破天荒的高價를 演出하기가 十常八九이라고 某硬派는 主張한다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買方 — 中限 — 先限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否認못할高價 畢竟은上放?

農家라할지라도 年末決濟의關係上賣急을 하지안흘수업는時期에入하여슴으로 境遇에 依하야는年末의 一落을告할지도 몰으다고 商談이區區

今年新穀期에入한以來 各地의米價를보면 日本內地의二個年繼續凶作이 非常한强材가되어 產地農家는 高米價의時代가 到來하기까지 絕對賣惜方針을 取하며一部賣急物은 平均的으로 搬出하는狀態임으로 新米期의行動은少毫도 加하지못하지못하고 마치爆發勢을 埋藏함과如한 雰圍氣가 濃厚하야 動輒反撥을示할

各地取引所의 大納會와初立會

各地取引所의 當限納會同受渡와大納會는 如左하다

▲堂島期米 當限納會二十日前場限、受渡二十三日、大納會二十六日前場、初立會는 一月四日午前九時부터 前場各節立會
▲下關期米 當限納會十九日前場受渡二十日、大納會二十六日前場
▲名古屋期米 當限納會十九日前場、受渡二十日
▲東京期米 同上
▲神戶期米 當限納會二十日受渡二十一日
▲京都期米 當限納會二十一日前場、受渡二十三日
▲東京綿絲 當限納會二十日前場受渡二十四日
▲橫濱生絲 當限納會二十一日前場、受渡二十四日

堂島前場賣買

▲賣方=飯田、地場乘換 中谷 東京側乘換
▲買方=岡米自己乘換 神戶側 來客側

各地正米

京城小强

依然濕潤의 賣氣薄으로 買物薄이오 實需側의 買氣繼續로氣配五錢引締인 丸仁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六圓丁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仁川小堅

正租의割强으로 低價賣物이 薄하고 不賣不買의閑散商狀이나 思惑側의 買望으로 五錢高의 小堅商狀을 呈한 丸仁三等二十八圓三十錢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釜山强合

市場出廻 五千五百叺 歲末關係로 賣物專寫이나前途樂觀의 假需要와 必需手當急에 잘消化되어 四千三百餘叺의 商談이 成立되고 十錢高明인角ヲ三等 二十八圓五十五錢 四等 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八錢

大邱弱含

淸算의 不透明과 買物薄으로 產地도 依然賣物이僅少하나 唱은軟弱하고 買上도期待薄하야 人氣는 漸次軟化의形勢로 角ヲ三等 二十八圓十錢 四等二十七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二十錢

群山保合

依然賣惜으로 出廻가 적은 狀態를 繼續하야 日本內地側의 沈默과 相俟하야 依然 取引이 不進하고 市況 閑散裡에 保合인 癸ク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廿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木浦不動

定期의 買氣滯在로 人氣小强推移이나 定期不透明으로 買物이 不添하고 唱은不動狀態인 丸木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市場六感

株 東新은 東京短期四十四萬株의 大取組가 重壓인지 北中政權樹立도 無影이고 年高年低로 浮動이繼續▲壯觀은鐘新의 百六十圓關門突破 拂込徵取란것이 압해잇고 採算이宏壯하니 뛰는것이當然▲안올느는東新마가지고 애쓰지말고鐘新에「조-징」買(追從買)를해보는것이 어떠나고某가로도는말한다▲昭和八年의 最高價二百二十九圓當時보다도 더만흔東京短期東新의 大取組를어떠케보아야可할가?▲東新本位의大市勢展開의 前提로보아야可할가? 天井가까운것으로보아야可할가?▲今年市勢란 意想外의行動을 만히하야슴뿐아니라昨年低價에서 五十圓高를演한東新에 對하야 老境에 入하얏다고볼수도 잇지만 원체 東新은 簡單한 市勢가 아닌지라年末 掉尾一振이 업다고도할수업는곳에 未練이잇다

米 昨後場의 止價는 一段高價를示할듯하엿스나 今朝에入하야는 다시下押、此는 保勢의 依例라는行動▲그러고 當地先限은 두節이나 賣買不成果然 極保合이로군▲極保勢갓헤는 一場分岐가 잇는것인데어느便으로 向할지 果然 五里霧中인걸▲政府는 米價高를嫌忌하야 買上을 躊躇하는모양 年內에 實行할지 안흘지가問題▲實施하지 안는때는 一段反落을 見할뜻도하나 원악地方의 出廻가 稀薄한만큼 此亦難問▲來十八日에는 公定米價를 決定하게 되다고 一般은 注目中 적어도 一圓程度는引上할터지▲此는 旣히 市勢에도 行動을加한바 잇지마는 決定되는날에 又復 一段高價를示할지도亦未知▲何如間 今後의需給窮屈도 免치못할일이오 또前途高價도 또한否定못할일이임으로 押目買의 方針이 大體良策일듯▲그러치만新米의威壓市勢가 업서든만큼어느때에 實現할지 亦未知

金融(十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貫入價

[illegible]

米穀(十日)

◆京正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十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大豆期麥 ◆醬油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鰯搾粕沖價

[illegible]

株式(十日)

◆朝取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新取短期賣買 ◆賣買 七引日步

[illegible]

期米(十日)

◆朝取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大阪期米 ◆新鮮內各地期米 ◆新取期米賣買高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十日)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銀賣金號 當 獎 金 地方注文應要送料先金 京城府貫鐵洞二一一四 電話長光一五九九

期 福 米 川 吉村取引店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應酬 送料先金要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橫濱生命 改稱 板谷生命 契約初年度より利益配當確定 配當する有利な保險 東京 日本橋 社長 板谷宮吉